2

소년단

1953

『새 민주조선을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

소년단

1958년 제2호

『공화국 영웅 정연팔 형님을 찾아서』

뜻 깊은 인민군 창건 다섯돐을 맞이하여
공화국 영웅 정연팔 형님의 전투 이야
기를 듣고 있는 소년단원들!

영웅적 조선 인민의 영광스러운 수령이며 항일 빨찌산
투쟁의 전설적 영웅이며 우리 인민군의 강철의 명장이신

김일성 원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정 령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 일 성 동지**에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원 수 칭 호**를
수여함에 관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영광스러운 조선 인민군 창건 5주년에 제하여 항일 민족 해방 투쟁에 있어서와 조선 인민의 무장력인 조선 인민군을 창건하고 그를 강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특출한 공훈을 세웠으며 미 영 제국주의 무력 침범자들을 반대하여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조선 인민의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 있어서 탁월한 지휘로써 적에게 섬멸적 타격을 주어 혁혁한 전과를 달성함에 빛나는 공훈을 세운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일성동지에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함과 동시에 원수 별을 수여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김 두 봉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서기장 강 량 욱

1953년 2월 7일
평 양 시

소년시

노래여 날려가라!

창전 다섯돐을 맞는 우리 인민군에게 영광을 드린다

리 맥

노래여 날려가라
이 아침
봄바람에 실려
훨훨 남으로 날려가라

그 어디에나
우리의 전사들 싸우는 그곳에
노래여 날려가라

바위도 부서져 가루가 된 고지
그속에서 싸워 이기는
우리의 전호마다에

검푸른 조국의 바다를 지켜
원쑤를 쳐박아 넣는
우리의 해병들에게

폭음도 요란히 구름을 헤쳐
남으로 남으로 날아가는
하늘의 매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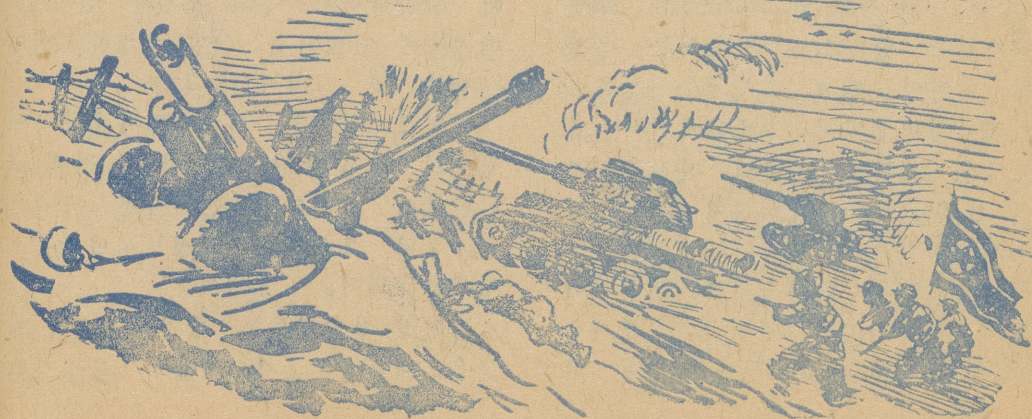
노래여 날려가라
어린이들 뜨거운 마음을
노래여 전해달라

이 아침
어린이들 손 들어
영광을 드린다
강철의 우리 인민군
영웅의 전사들에게

이 아침
보다큰 승리가 있으라!
보다큰 영예가 있으라!

미제 강도배들에겐
죽엄이 있으라!
멸망이 있으라!

영웅들을 뒤따라
용감한 소년 될것을
이 아침 어린 심장들
손 들어 맹세 하나니

노래여 날려가라
전호 속에
바다에 하늘에
어린이들 뜨거운 마음을
노래여 전해달라

김일성 원수는 조선 인민군의 창건자이며 조직자이며 최고 사령관이시다

우리 민족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탁월한 명장이신 김일성 원수께서 직접 조직하신 우리 인민군은 우리 인민들이 달성한 제반 민주 개혁과 민주 건설의 성과를 보위하며 미제 무력 침공자들로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듭하면서 창건 5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 원수께서 일찌기 조국 남반부에 기여든 미제와 그의 앞 잡이 리승만 도당들이 우리 조국을 식민지화 하고 중국과 쏘련을 침략하는 발판으로 만들려는 온갖 행동에 대하여 항상 경각성을 높이라고 전체 '인민들에게 호소하시면서 민주 조국을 보위할 인민의 진정한 무장력을 창설할 데 대한 민족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시였습니다.

우리 인민군의 창건자이며 조직자이며 최고 사령관이신 김일성 원수께서 조선 인민군 창건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시였습니다.

『어떠한 국가를 물론하고 자주 독립 국가는 자기의 군대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군대를 가지지 못한 나라가 완전한 독립 국가로 될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우리 조국이 일본 제국주의자에게 강탈되였던 것도 그 당시에 있어서 우리 조선 인민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 군대를 격파 할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국이 완전 자주 독립 국가로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조국과 인민을 침략 할 수 없게하는 인민 군대를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김일성 원수의 이 가르치심에 따라 원수의 직접 조직 지도하에 전체 조선 인민들의 환희와 높은 자랑 속에 1948년 2월8일 조선 인민군은 창건되였습니다.

김일성 원수께서는 창건된 우리 인민군을 새로운 군사 기술과 최신식 무기로 무장된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보병은 물론 포병, 땅크병 등 각 병종 기계화 부대들과 해군, 공군 등으로 길러 내였습니다.

이와함께 김일성 원수께서는 인민군의 지휘관과 정치 간부들을 양성함에 특별한 배려를 돌리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군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마지막 피 한방울 까지도 바치는 고상한 애국주의 사상과 원쑤를 미워하며 승리에 대한 튼튼한 신심을 가진 강철같은 무장력으로 되였습니다.

미제 무력 침공자들의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침공을 개시하자 우리 인민 군대는 미제 무력 침공자들을 격멸 소탕하라는 최고 사령관이신 김일성 원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원쑤들의 불의의 침공을 단숨에 격파 분쇄하고 반 공격전으로 넘어 가서 불과 1개월 동안에 남반부의 10분지 9에 해당 되는 넓은 지역을 해방시킨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전략상 일시적 후퇴의 시기에 우리 인민 군대는 김일성 원수의 옳바른 령도하에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굳게 간직하고 온갖 곤난과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적에 대하여 끊임 없는 타격을 주면서 극히 짧은 시일 내에 병력을 재정비 하고 형제적 중국 인민 지원군과 협력하여 북반부 깊이 기여든 원쑤들을 38선 이남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인민군 전체 장병들은 김일성 원수의 영예로운 전사로서 용감 무쌍하게 싸워 이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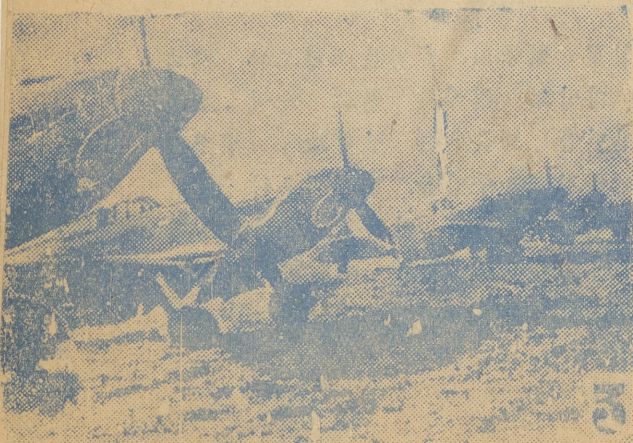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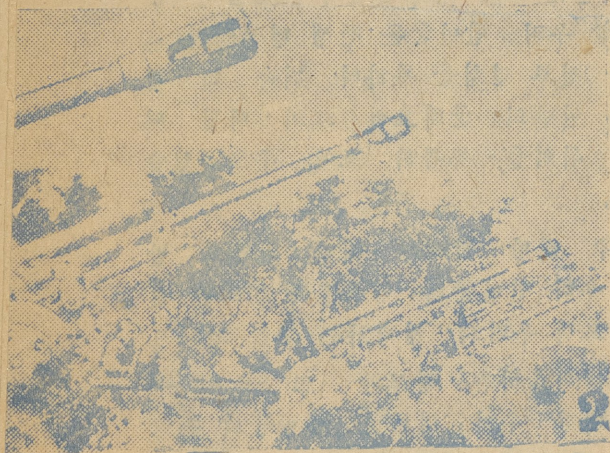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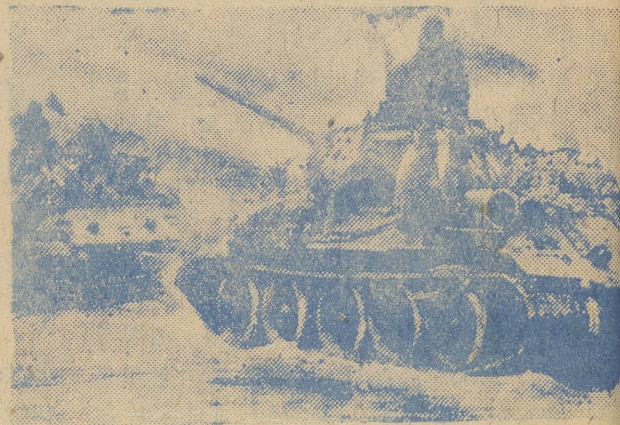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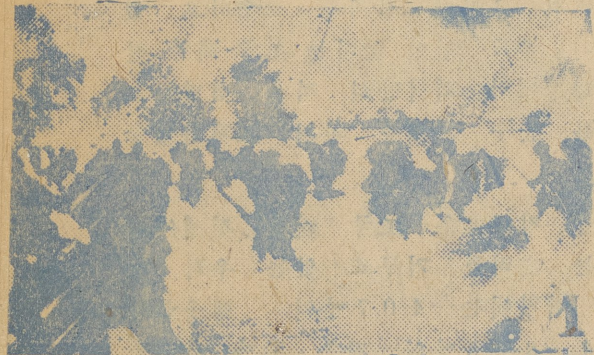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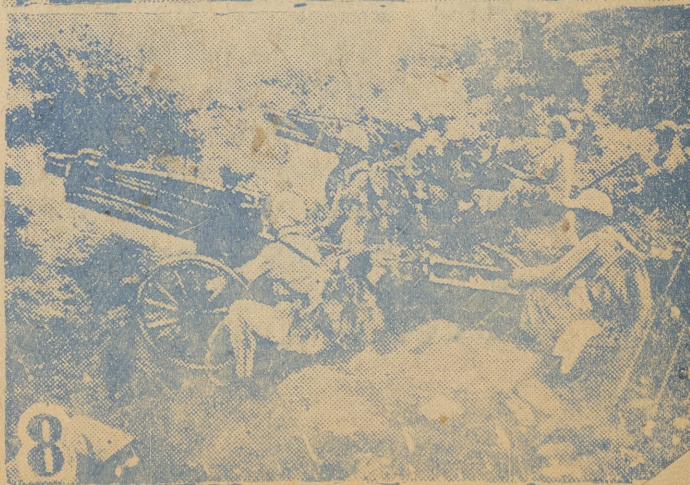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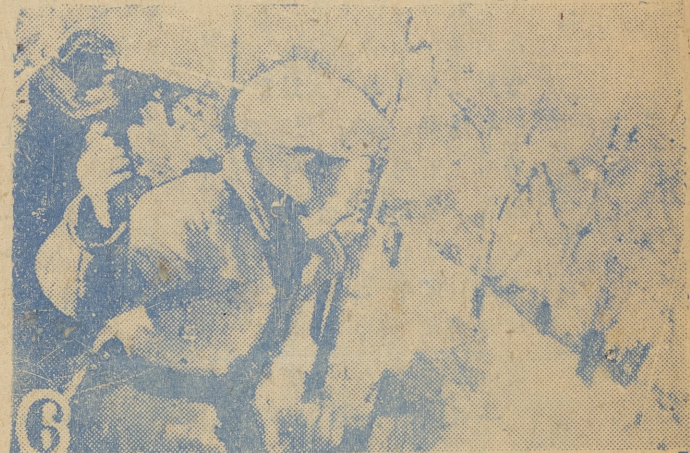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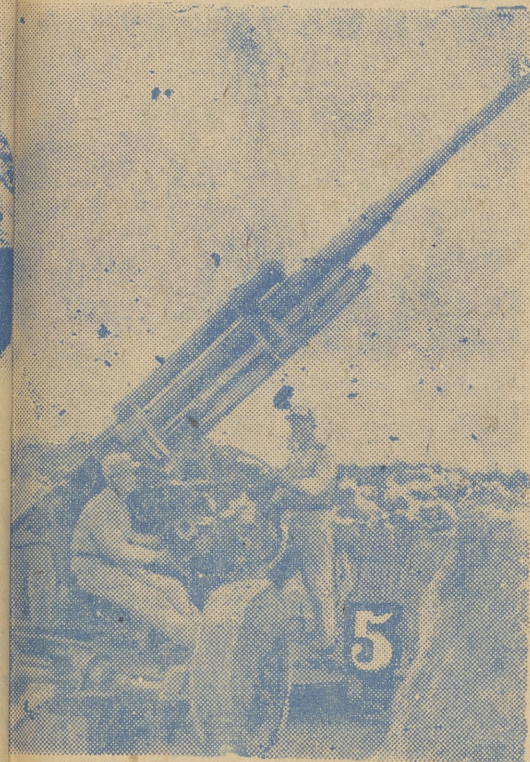
전번 854·1고지의 가렬한 전투마당에서 18세의 젊은 영웅 박원진 무선사는 불을 뿜는 적 중기 총신을 틀어 잡고 자기의 몸으로 적의 총 아구리를 막아 아군의 진격을 보장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령도하에 고상한 애국주의로 굳게 무장된 우리 인민 군대의 투쟁은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원쑤들의 침략 기도를 분쇄하고 38선 계선에서 우리의 진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 군대는 조국 해방 전쟁 행정에서 백여만의 적을 섬멸하고 막대한 군수 기재를 파괴 로획하였습니다.

오늘 정의로운 조국 해방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고 있는 우리 인민군 대렬에는 407명의 영웅들과 424,828명의 각종 훈장, 메달을 수여 받은 모범 전투원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군은 전쟁 행정에서 고귀한 전투 경험을 통하여 더욱 더 강력한 인민의 군대로서 그의 백전 백승의 위력을 톡톡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의 지난 기간에 발휘한 우리 인민군의 영웅성과 빛나는 전과는 오직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옳바른 령도와 또 자기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의 충성심과 헌신성의 표현으로 되는 것입니다.

김일성 원수의 옳바른 령도와 전체 조선 인민의 지지와 원호 속에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영예로운 투쟁속에서 창건 5주년을 맞는 우리 인민군은 반드시 원쑤 미제를 우리 조국 강토에서 완전히 격멸 소탕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 독립을 쟁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조선 인민군 창건 5주년 만세!

화 보 설 명

조선 인민군의 무장력은 강대하다!

(1) 돌격 앞으로!『만세!』 하늘 땅을
적진에 돌격해 들어가는 인민군 보병 용
(2) 한번 불을 토하면 어떠한 원쑤놈들
아도 용서하지 않는 위력있는 인민군 포
(3)『출격을 앞두고!』
조국의 하늘을 철벽같이 지키는 용감하고 슬
우리의 하늘의 매들!
(4) 천지를 뒤 흔들며 적진으로 돌입하는
강철 부대 땅크들은 내달린다

하늘로부터 침입하는 미국 공중 도적들을
쪽쪽 떨구는 백발백중의 인민군 고사
『눈 덮인 고지의 방어는 철벽!』찬 바람
치는 고지를 지키고 있는 인민군 용사들!
전투 여가를 리용하여 인민군 용사들과 중
지원군 용사들의 흥겨운 오락회의 한때—
항미원조·보가위국의 성스런 깃발도 높이
전선에 참가하여 빛나는 군공을 세우고 있
국 인민 지원군 포부대 용사들!

빛나는 승리를 거듭하고 있는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의 환경 속에서 전체 인민들과 더부러 우리 소년들은 영광스러운 조선 인민군 창건 5주년을 열렬히 축하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쏘련 군대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일제의 압박하에서 해방된 우리 조국 북반부에서는 인민들이 자기의 손으로 인민 정권을 세우고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가지 민주 개혁과 빛나는 민주 건설을 성과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 남반부에 주둔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며 우리 조국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자기의 침략적 야심을 달성하기 위하여 리승만 매국 도당들을 앞 잡이로 내 세우고 인민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근 반세기 동안이나 일제의 압박하에서 식민지 노예의 쓰라린 생활을 겪어온 우리 조선 인민들은 미제가 조국 남반부에서 쓰고 있는 정책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자유와 통일 독립을 위하여서는 우리 조선 인민들이 이미 거둔 여러가지 민주 개혁과 민주 건설의 성과들을 국내외의 적들로부터 지켜 내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는 강력한 인민의 무장력을 창건하며 그를 강화하는 문제가 우리 전체 조선 인민들 앞에 긴급하게 나섰습니다。

이 긴급한 민족적 과업은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직접 지 하에 성과 있게 달성되였습니다。그리 여 전체 인민들의 환희 속에서 194 년 2월 8일 조선 인민군은 창 되였습니다。

전 세계를 자기 손 아귀에 틀어 쥐 고 꿈 꾸는 미제는 우리 조국을 중 인민 공화국과 쏘련을 침략하기 위 발판으로 만들 목적으로 조국의 통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요구를 탄시키고 자기의 앞 잡이 리승만 도 들을 시켜 동족 상쟁의 내란을 일 켜 놓고 이미 계획하였던 대로 직접적 무력 침공의 마수를 뻗치게 되였습니다

만일 우리들의 경애하는 수령이 김일성 원수의 령도하에 인민 군대를 때에 창설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위 있는 군대로 강화하지 않았더라면 써 미제는 우리 조국을 완전히 강 하고 우리 인민들을 자기의 노예로 들었을 것이며 오늘과 같이 빛나는 승 를 우리는 쟁취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탄생한지 5년밖에 안되는 리 인민 군대가 20세기 초 까지만 하 도114차에 걸치는 야수적 략탈 전 에 참가하였으며 머리 털부터 발 끝까 무장한 미국 군대를 성과적으로 물 치고 있는 그 힘은 어데있습니까?

그 힘은 우리 인민 군대가 가지는 징에 있는 것입니다。

조선 인민군은 조국을 열렬히 사

하는 가장 우수한 근로 인민의 아들 딸로 조직되였으며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용감하며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바쳐 싸우는 정정한 인민의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인민들은 인민 군대를 열렬히 사랑하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인민들은 전선의 요구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하여 힘찬 증산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후방을 파괴하려는 원쑤들의 기도를 분쇄하면서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굳게 단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 군대의 지휘관과 전사들 사이에는 이 고귀한 목적 밑에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신임하는 고상한 전우애로 굳게 단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인민 군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인민 군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 하에서 조국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온갖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시면서 싸우신 김일성 원수의 항일 무장 투쟁의 애국적 전통을 물려 받은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민 군대는 항상 김일성 원수의 항일 투쟁 력사에 고무 격려되면서 원쑤들을 격멸 소탕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갖추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인민 군대는 레닌 쓰딸린 대원수에 의하여 창조된 선진적 쏘베트 군사 과학과 군사 기술로 무장되고 쏘베트 군대가 발휘한 영웅성과 대담성을 자기의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인민 군대는 인민과 조국과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에 대한 끝 없는 충성심과 헌신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고상한 국제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민 군대는 조선 로동당과 수령의 올바른 지도 하에 오늘 새로운 '공세'를 기도하는 원쑤들을 서산 락일의 운명에로 몰아 넣기 위한 만반이 싸움에 튼튼히 준비되고 있으며 당과 수령의 부름에 따라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바쳐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용감히 일떠서고 있습니다。

오늘 제국주의의 흉폭한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조선 인민군은 중국 인민 지원군의 적극적 지원과 국제 민주 진영과 전세계 자유 애호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 군대의 무력은 1951년 후에 1952년까지의 기간에 자동총 114%, 기관총 124%, 대포 128%, 박격포 140%, 고사포 218%, 땅크와 싸마호드 자동포 182%로 각각 장성되였습니다。

지난 전쟁 기간을 통해 얻은 풍부한 전투 경험과 최신식 무기로 장성 강화된 우리 인민 군대는 미제 원쑤와의 판갈이 싸움에서 반드시 종국적 승리를 쟁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전체 소년들은 후방 인민들의 사업을 열성적으로 도우며 전선에 계시는 인민군 형님들에게 더 많은 선물과 편지를 보내며 인민군 후방 가족을 적극 도와 드립시다。

영웅 형님들의 모범을 받아 학과 학습에서 모두가 최우등생이 되여 훌륭한 새 나라 새 일군으로 준비합시다

그리하여 모두다 원쑤 격멸의 결전에로 총궐기합시다

동무들의 선물을 받고

친애하는 소년단원 동무들!

인민군 창건 5주년을 기념하여 저희들에게 보내준 각가지 선물과 편지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동무들의 지성 어린 선물과 편지를 받아 본 우리 부대 동무들은 모두가 어린애처럼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펴쳐 보며 편지를 교대로 읽어 가며 행복과 즐거운 한 때를 보내였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나는 오늘 우리 부대에 있은 감격적인 사실 한가지를 알려 드림으로써 동무들의 그 갸륵한 심정에 보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나흘 전 일이였습니다.

우리 소대에는 황해도 어느 인민 학교 녀자 소년단원 동무로부터 귀여운 조선 인형 하나가 선물로 보내여 왔습니다.

정성껏 포장한 위문품 자루 속에 인형과 함께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감격적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어린 동무에게는 사랑스러운 녀자 동생 순옥이란 애가 있었는데 한 달 전 놈들 폭격에 그만 죽었다고 하면서 그 인형은 바로 자기 동생이 항상 아끼고 사랑하던 인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무는 이 인형을 동생으로 알고 꼭 이 애 원쑤를 갚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그날로 의논하여 우리 소대에서도 가장 명중률이 높다고 하는 제1 포진에다 이 귀여운 선물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전투 여가를 리용한 사격 훈련 때마다 눈 앞에 걸린 이 인형을 바라보며 백배 천배의 복수심에 불탔고 훈련의 성과는 높아졌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미국 젯트기 여섯대가 날아 들어 아무런 군사 목표도 없는 평화적 주민 지대에 대하여 야수적 기총 소사와 나팔탄을 투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부대 전투원들의 사기는 충천하였습니다. 『때는 왔다! 옥순이의 원쑤를 갚자!』 라고 웨치면서 정확한 조준과 함께 사격을 개시하였습니다.

친애하는 어린 동무들!

이날 우리 소대에서는 적기와의 십육분 간의 전투를 통하여 놈들 젯트기 네대를 격추하고 한 대를 격상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단원 동무들!

전선은 철벽 같이 튼튼합니다.

꾸준히 학습하십시요!

더욱 몸을 튼튼히 단련하십시요.

동무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1953년 2월 8일

○○ 고사포 군부대

리 경 수

우리의 원쑤를 갚아 주세요

오늘 우리들은 인민군 창건 다섯 돐을 맞이하면서 형님들에게 끓어 넘치는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뜻 깊은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소년단 분단 회의를 열고 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형님들에게 이 글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소년단원들은 전시의 곤난한 환경 속에서도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따뜻한 품속에 안겨 하루도 빈점이 없이 매일처럼 학습을 계속하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재미 있는 군사 유희도 하며 유쾌히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학습이 끝나면 인민군 가족들의 집 일을 도와 드리며 파철을 모으며 전선에 편지와 위문품들을 보내는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미국 강도놈들이 아무리 지랄을 쳐도 우리들의 학습과 노래와 춤은 결코 빼앗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놈들의 어떠한 책동도 용감히 물리쳐 주시는 인민군 형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민 군대 형님들!

지금 우리에게는 분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며칠 전 일이였습니다.

악독한 미국 하늘 도적 놈들은 이날 밤도 우리들이 곤히 잠든 재빰을 틈타서 숱한 폭탄과 나팔탄들을 우리의 머리 위에 퍼부었습니다.

이날 밤 우리가 사는 곳의 많은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이 무참히도 죽었고 산 기슭에 지었던 토굴들마저 그 흔적조차 알아 보기 힘들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선생님들과 우리들과 마을 사람들이 힘들여 지은 우리 교실도 없어졌습니다.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던 박경홍 선생님과 많은 우리 반 동무들이 무참하게도 학살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광경을 눈 앞에 보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보다도 먼저 원쑤 놈들이 미웠고 이 원쑤를 갚겠다는 결심이 우리를 그렇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민 군대 형님들!

밉고 또 미운 미제 놈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적개심은 우리의 가슴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민 군대 형님들이여!

우리 선생님과 동무들과 어머니와 동생들의 원수를 갚아 주십시요.

우리는 후방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더 학습을 잘 하며 인민 군대 가족들을 돌보며 전선을 위한 어른들의 일들을 힘껏 도와 싸우겠습니다.

후방의 걱정은 조금도 마시고 오직 밉고 또 미운 미제 원쑤놈들을 한 놈이라도 더 많이 잡아 주십시요. 우리의 부탁은 오직 이것 뿐입니다.

영용한 인민군 형님들의 건강과 빛나는 군공을 바랍니다. 6

1953년 2월 8일

평양시 제○○ 인민학교

제5학년 소년단원 일동

올림

고지의 영웅

—혼자서 적 146명을 살상 포로한 고경식 영웅의 위훈—

박 영 식

1950년 겨울 전략상 일시적 후퇴를 끝내고 재차 진격에로 넘어간 인민군 ○○군부대 용사들은 형제적 중국 인민 지원군 부대들과 힘을 합하여 발악하는 원쑤놈들을 각지에서 무찌르며 남으로 남으로 내달았습니다. 우리 인민군 용사들은 평양을 해방시킨 후 계속하여 도망치는 적들을 추격해 나아갔습니다.

이 승리적 진군의 대오에는 우리의 용감한 분대장 고경식 형님도 끼여 있었습니다. 형님은 불을 토하는 경기를 틀어 잡고 신천에서, 해주에서 적들에게 무리 죽엄을 주고 다시 진격하여 자기 고향인 연백군 봉북면 오현리를 통과하게 되였습니다. 정든 고향 마을에 들어 선 형님은 원쑤놈들이 남겨 놓고 간 각가지 참을 수 없는 참상을 목격하였습니다

고경식 영웅의 맏 형님과 둘째 형님은 원쑤놈들에게 학살 당하였고 세째 형님은 놈들과 싸우다 희생되였습니다. 원쑤놈들에게 이런 만행을 당한 것은 비단 형님의 가족 뿐이 아니였습니다. 이웃에 살던 늙은이들과 아주먼네들 그리고 귀여운 어린 동생들까지 수 많이 미국 살인귀들의 총검에 무참히도 쓰러졌었습니다.

땅의 주인으로 된 형님들과 함께 농사 짓기에 즐거운 매일을 보내던 일이며 살림이 풍족해지자 중학교에 들어가 배움에 힘 쓰던 일과 친절한 마을 사람들의 찬송을 받으며 경비대로 입대하던 그날, 그리고 원쑤들을 멀리 남해의 한 모퉁이까지 휘몰아 넣고 섬멸 소탕하던 통쾌한 싸움—이 모든 것들이 고경식 형님의 머리 속에 주마등 같이 스치고 지나 갔습니다. 행복하고 즐겁던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원쑤의 만행으로 상처를 입은 마을의 참혹한 광경을 눈 앞에 보게 된 고경식 형님의 가슴 속에서는 원쑤에 대한 증오와 복수의 불길이 더우기나 더 솟았습니다.

「원쑤를 갚아 주소. 그놈들이 내 아들을 죽였소!」

「내 남편을 학살한 원쑤를 갚아 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우리 인민군 용사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고경식 형님은 다시는 짐승 같은 원쑤놈들이 정든 고향 땅에 들어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기름진 고향 땅에 다시 즐거운 노래를 가져 오기 위하여 굳은 결심을 다짐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고경식 형님은 사랑하는 경기를 더욱 굳게 틀어 잡고 계속 전선으로 달렸습니다.

× ×

고경식 형님이 소속한 김정하 모범중대는 적진 351 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 중대 전투원들은 빗발치는 적탄 속을 뚫고 수류탄을 던지고 자동총을 휘두르며 351 고지의 적을 향하여 돌진하였습니다. 중대 민청 위원장인 고경식 분대장은 원쑤놈들의 단 하나의 도망칠 구멍인 351 고지의 동쪽에 자리 잡은 무명 고지의 교통호를 끊어 버릴 임무를 맡고 자기 분대원들을 목적지로 접근시켰습니다.

이때에 전진하는 분대원들 앞에서 적 경기 두정이 불을 내 뿜었습니다.

분대의 전진이 난관에 부닥치게 된 것을 본 고경식 형님은 날쌔게 적 경기 화점 앞으로 뛰여 들며 「휘!」 수류탄 두개를 께 뿌렸습니다.

「꽝! 꽝!」

한개의 화점이 순식간에 부서져 날아 났습니다.

그러나 남은 한개의 화점에서는 아직도 불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참호를 따라 적 화점에 바싹 다가 선 고경식 형님은 어느듯 적 화점 뒤쪽 구멍으로 수류탄을 쑥 넣었습니다.

「꽝!」

요란한 폭발 소리와 함께 적 경기 사수는 경기와 함께 박살되였습니다.

고경식 형님의 분대원들은 목적한 교통호에 다가 갔습니다. 교통호에서는 옷도리도 못 추어 입은 괴뢰군 놈들이 갈팡질팡 돌아 갔습니다.

「손 들엇!」

비호처럼 달려든 고경식 형님의 날카로운 호령에 적병들은 질겁을 하며 다섯놈이 일시에 버쩍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뒤쪽에서 「땅 땅땅!」 나머지 놈들이 허트루 총질을 하였습니다.

고경식 형님이 「반항하는 놈은 죽인다!」고 고함치자 한경호, 려현훈 형님들이 참호 속에 뛰여 들어 대항하는 적을 보기 좋게 찔러 눕혔습니다.

세 놈의 적병이 두 손을 조이삭 비비듯 싹싹 비비며 살려 달라고 애걸 복걸하였고 20 여명은 도망치려다가 모두 죽어 너머졌습니다.

놈들이 도망칠 길은 완전히 끊어졌고 고지의 적들은 모주리 소멸되였습니다.

전투가 개시된지 불과 삼십분 밖에 되지 않는 동안에 승리를 알리는 우리 용사들의 만세 소리는 멀리 산 울림 쳐 울려 퍼졌습니다.

중대는 곧 방어전으로 넘어갔습니다.

고경식 분대는 무명 고지에서 방어 진지를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어 진지가 채 다 구축되기도 전에 적들의 맹렬한 반격이 시작되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적 한개 소대가 고경식 분대 앞으로 강력한 포화의 엄호를 받으며 달려 들었습니다

다음은 낮 한시와 세시 경에, 그리고 저녁 해질 무렵, 이렇게 적 한개 중

대가 제차례의 반격을 거듭해 왔습니다.

형님은 이날의 전투에서 성난 사자와 같이 싸우고 또 싸워 도합 53명의 적을 찔러 눕혔습니다.

밤이 되자 적의 포 사격은 더욱 심해 갔습니다. 포탄은 무데기로 날아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새로 만든 전호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밤 11시경 고경식 형님은 적 포탄에 세 곳이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말 없이 자기 혼자서 지혈붕대를 동여 매고 다시 진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날이 밝아서야 분대원들은 분대장이 상한 것을 알았습니다.

또 다시 적 한개 대대가 고지를 3면으로 에워 싸고 아우성치며 밀려왔습니다.

고지에는 위험이 닥쳐 왔습니다.

「용사들이여! 당원들의 모범을 따라서라!」고 웨친 고경식 형님은 수류탄을 쥐여 들고 적을 맞받아 나아 갔습니다.

한개 대대의 적이 러섰을 때 고경식 형님은 팔과 다리에 다시 네 곳이나 상처를 입었습니다. 형님의 온몸은 피 투성이가 되였습니다.

이때는 또한 적들의 반격이 거듭되였기 때문에 고경식 형님을 후송할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고지 한구석으로 해빛이 기여 들었습니다. 이 때에 겨우 전호에 기대고 있던 고경식 형님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적 다섯놈이 20메터도 못 되는 거리에 달려 들고 있었습니다. 고경식 형님의 오른 팔은 출혈이 심했습니다. 형님은 왼팔에 있는 힘을 다 모두어 가지고 수류탄 세 개를 집어 던졌습니다.

「꽝! 꽝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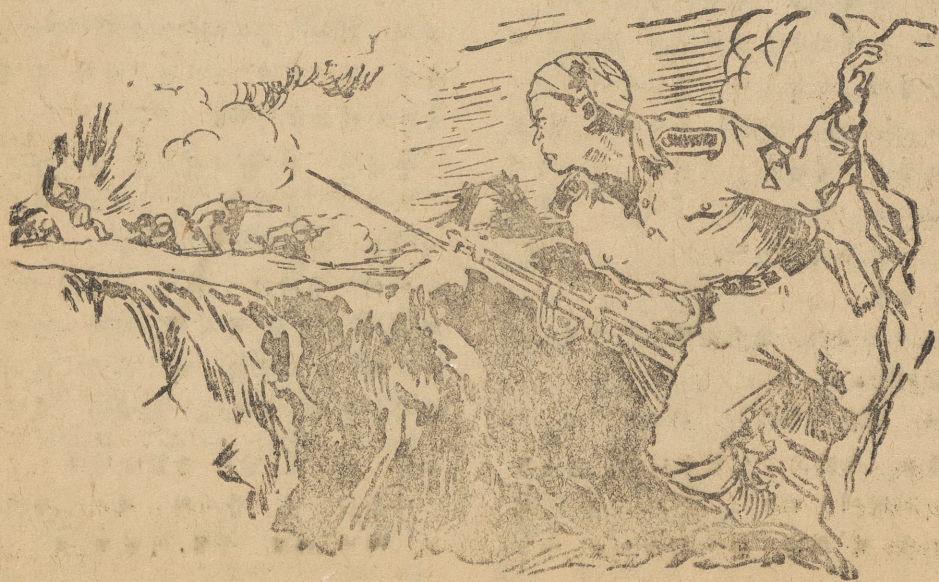
몇놈이 쓰러지고 세 놈이 달려 왔습니다. 순간 고경식 형님은 자기도 모르게 부상 당한 팔에 총창을 거꾸 쥐였고 붉은 피로 물젖은 다리로 굳세게 땅을 드디고 일어나 단숨에 적 세놈을 찔러 눕혔습니다. 그리고 형님 자신도 적 시체 위에 쫙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고경식 형님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야전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형님은 351 고지 전투에서 혼자서 적 146명을 살상 포로하고 화점 두개를 부수어 중대의 전투 승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고경식 형님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하였으며 형님의 분대원들에게 국기훈장과 전사의 영예 훈장을 각각 수여하였습니다.

영웅 림돈욱 형님을 모시고

평양 제OO 중학교 소년단 위원장 김 형 순

우리 학교 소년단에서는 인민군 창건 5주년을 앞두고 지난 1월 31일 영웅 림돈욱 형님을 모시고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좌담회는 시 민청, 구역 민청 형님들을 비롯해 우리 학교 여러 선생님들과 소년단 영웅 연구 크루쇼크원들을 중심으로 많은 단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 영웅을 모시기까지

우리 학교 소년단 제10차 단 위원회에서는 인민군 창건 5주년을 계기로 새로 나온 영웅들을 더 많이 연구할 것과 이미 지난 기간에 영웅 연구 크루쇼크가 연구한 40여명의 영웅들을 차례로 단원들 앞에 발표할 것이 토론되였습니다. 그 후 영웅 연구 크루쇼크에서는 단 위원회 계획에 의하여 조근실, 박원진 영웅들의 발표회를 진행해 오던 중 지난 1월 20일 2·8절을 앞두고 영웅을 직접 모시고 좌담회를 조직할 것을 단 위원회에 제의해 왔습니다.

단 위원회에서는 이 제의를 접수하고 단 지도원 선생님과 의논한 끝에 구역 민청에 건의하여 영웅을 소개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소개 받은 영웅이 바로 〃소년단〃 10월 호를 통해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던 림돈욱 형님이였던 것은 참으로 뜻 밖이였습니다.

일찌기 소년단에서 자라나 영웅까지 되신 형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들의 더 없는 기쁨이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단 위원회에서는 부문별로 분공하여 형님을 맞을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 영웅 형님을 모시고

좌담회는 오후 2시부터였지만 이날

은 이른 아침부터 단원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단실은 영웅 연구 크루쇼크와 단 벽보 편집 위원회와 각 써클들에서 준비한 영웅들의 투쟁 모습을 그린 각종 문예, 미술 작품, 영웅 사진 스크랩북, 화보 2·8절 특집호, 벽신문 등으로 치장한 전람회장으로 변하였습니다。

장내에서는 좌담회 시간을 앞두고 즐거운 오락회가 벌어졌습니다。

이윽고 교장 선생님의 안내로 꽃다발을 한아름 안은 영웅 형님이 들어 오셨습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와 함께 알락 달락한 꽃가루들이 형님의 온 몸을 휩쌌습니다。

동무들의 시선이 일제히 형님의 앞가슴에 단 훈장에로 쏠리자 박수 소리는 더욱 요란해졌습니다。

마침 이때입니다。

「동무들! 이제로부터 우리들이 듣고 싶던 영웅 형님의 이야기를 듣기로 합시다。」

단 벽보 주필 박병향 동무의 말이였습니다。

형님은 웃음 어린 얼굴로 우리들을 휘둘아 보시며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의 치렬한 불길 속에서도 나는 오늘 영예로운 중앙 모범 소년단의 단원들인 동무들과 한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와 원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두터운 배려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렁찬 박수 소리가 장내를 뒤흔들었습니다。

「나는 먼저 형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한 뒤를 홍성제 동무의 말이였습니다。

형님은 원래 구차한 빈농가의 가정에서 태어나 해방전에는 학교도 변변히 다니지 못했답니다。

「있는 집 애들은 비가 오는 날에 비옷이나 우산을 받고 학교에 나가는데 나는 왜 가마니짝을 뒤집어 쓰고 나가지 않으면 안되였겠습니까? 조선말을 하면 왜 뺨을 얻어 맞아야 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들은 나라 없는 인민의 슬픔이란 그런 것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달았으며 동시에 원수 미국놈에 대한 증오심이 북바쳐 올랐습니다。

「나는 형님이 해방 후 오신 중학교에서 소년단 생활을 하시던 때 이야기를 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웅 연구 크루쇼크원 주성철 동무의 제의였습니다。

형님은 쏘련 군대에 의하여 우리 나라가 해방된 후 김일성 원수의 은덕으로 토지 개혁 후 이태만에 기와집을 마련하게 된 일이며 그해 가을에 중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하여 공부하던 이야기를 하시였습니다。

「내가 오신 중학교에 입학한 것은 1학년 2학기 때였습니다。 그때 나는 성인 학교에서 겨우 문맹을 퇴치한 정도였기 때문에 2학기 말에 겨우 3계단의 성적 밖에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학생 규칙을 지켜 가며 소년단 반에서 동무들의 방조도 받으며 꾸준히 학습하였습니다。 결과 3학기 말에는 4계단의 성적을 얻었고 그후 2학년 말에 와서 최우등생이 되였으며 또 영예로운 민청원이 되였습니다。 참으로 소년단은 나를 잘 키워 주었습니다。」

「그럼 형님이 인민 군대에 입대한 것은 언제입니까?」

김영범동무의 질문이였습니다。

「내가 입대한 것은 1950년 7월 26일입니다。 그때 벌써 놈들의 비행기가 우리 학교 주변에다 함부로 기총 소사와 폭탄 등을 던지였고 밭에서 김 매던 무고한 농민들을 쓰러 눕힐때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가만이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고사포수가 되여 이 원쑤를 갚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는 끝내 고사포 부대에 입대하고야 말았습니다。 그후 나는 규률과 훈련을 생명으로 삼아 군정 학습에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나는 입대한지 20일만에 영예롭게도 조선 인민군 고사포 사수 (부분대장) 가 되였습니다。」

모두들 박수를 쳤습니다。

「그럼 형님이 영웅이 된 것은 언제입니까?」

김능일 동무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1952년 4월 29일 정명이였습니다。 내가 영웅이 된 것은 나 혼자만이 잘 싸웠기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한달 동안에 여섯대의 적기를 떨굴 수 있은 것도 모두 최고 사령관 김일성 원수의 명령을 받들고 우리 부대 동무들이 서로 도와 싸웠기 때문이며 또 후방에서 전체 인민들과 동무들이 전선을 도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형님! 후방에 도라 와 보는 감상이 어떻습니까?」

김대중 동무의 물음이였습니다。

「나는 이처럼 가렬한 불길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싸우는 후방 인민들과 특히 소년단원들의 씩씩한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원쑤놈의 폭격에 학교를 잃고도 동무들의 힘으로 이렇게 훌륭한 교실을 마련해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후방은 철옹성 같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나는 부대에 도라가면 꼭 이 모습을 전우들께 낱낱이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은 계속해 말씀하셨습니다。

「원쑤놈들은 더욱 악랄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때 보다도 경각성을 높이여야 합니다。

나는 전선에서 원쑤놈의 비행기를 한놈이라도 더 잡겠습니다。 동무들은 더욱 충실히 공부하면서 후방에 기여든 간첩을 한놈이라도 더 잡아 냅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수령 김일성 원수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은혜에 보답합시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의 최후 승리를 쟁취하는 길입니다。」

우렁찬 박수가 오래 계속되였습니다。

우리들이 형님과 함께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단 실을 나섰을 때는 벌써 해가 서산에 기울이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형님의 가슴에 단 훈장은 때마침 비처 주는 붉은 노을 빛에 유난히도 빛났습니다

소년시

남이가 부른 노래

김 련 호

절레꽃 피는 언덕길
오가는 사람들은 생각한다네

다섯살 난 남이
노래부른 그 이야기—

총을 곤두세운 원쑤놈들
우쭐 우쭐 둘러서고

눈보라 윙 윙
고드름이 툭툭 나리여

지는해도 샛파래
가만히 엿보는 살창속

농사일 녀맹일 잘 하여
온 마을 사람들 잡혀드던 날

엄마등에 업힌채 끌려들어
열날 열밤도 더 지낸 남이

영애 순애 노마……
제또래 생각이 또 났나봐요

『엄마—집에 가—잉』
자꾸만 졸라 대이여

『오냐 이제 집에 가자』
쓰다듬어 주시는 엄마가 좋아

엄마목 끌어 안고
두다리 흔들 흔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구비구비 피어린 자욱』

두손 잡고 부르는 노래
살창넘어 흐르는 노래

아! 김장군이 그리워선가
인민군대 그리워선가

어굴이굴 타이는 얼굴들
모두모두 바라 보시고

『남이야 잘무한다 잘무 해—』
숱이 엄마 칭찬 하시는데

원쑤의 보초는 발악을 쓰는구나
『어쩰 뒤새끼야 닥치지 못해?』

그래도 그래도 부르는 남이의 노래
『아!그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어서 닥치지 못해!』
총을 들고 뛰어드는 보초놈

가로 막은 철이 할머니
『내가 불러서—내가 불러서—』

『제거 비키지 못해?』
원쑤놈 밀치고 덤벼들재

『그놈 잡아라…』
벼락같은 웨침 집안을 울리여

날아드는 바위같은 주먹들
원쑤놈의 골통을 까부시였나

남이를 안아올린 철이 할머니
『불러라 남이야!어서 불러라』

『아!그 이름도 빛나는 우리의장군』
목청돋구어 부르는 노래

모두모두 따라 불렀네
『아!그이름도 빛나는 우리의 장군』

원쑤들 앞에서 노래 부른
다섯살 난 남이의 그 이야기—

오늘도 절레꽃 피는 언덕길
오가는 사람들은 생각한다네

전선 위문단

평양 제O 녀자 중학교 소년단에서

주 현

1월 30일 전선 위문단 일행은 전체 단원들의 환영속에 전선의 수 많은 선물들을 가득 안고 기쁨에 찬 얼굴로 도라왔다。

그날부터 귀환 보고회 준비가 바빴다。 전체 단원들이 손 꼽아 기다리던 2월 8일이 되였다。

아침 일찍부터 학교는 귀환 보고회에 대한 이야기로 뒤끓었다。

회장에는 2•8절을 기념하는 문학• 미술 공작품 그리고 전선에서 보내온 편지와 감사문들로 전람회가 벌어졌다。

모두들 떼를 지어 다니며 전람회 구경에 한때를 보냈다。

얼마 후 회장은 고요해 지고 자리가 정돈되였다。

『이제부터 여러 동무들이 손 꼽아 기다려오던 전선 위문단 귀환 보고회를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단 위원장으로부터 개회가 선언되고 막이 열렸다。

학교 청사를 배경으로한 무대에는 다만 소년단 행진가가 멀리서부터 차츰 가깝게 들려 올 뿐이더니 인차 전선 위문단 일행을 선두로 한 소년단원들이 나타났다。

단원들은 무슨 영문인지를 잘 몰랐다。 무대에서는 전선 위문단 환송회가 벌어지고 전선 위문단 일행이 꽃다발을 받아 안고 전선을 향하여 교문을 나서는 장면이 벌어지고 막이 내렸다。

전체 단원들은 그 때야 알았다는 듯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올렸다。

뒤끓는 환희 속에서 다음 장면이 벌어졌다。

무대에는 황해도 신천 거리의 한 모퉁이가 나타났다。 자그마한 언덕을 옆에 끼고 초가집이 한채 앉았고 그 뒷켠으로 멀리 묘지가 하나 바라 보인다。

초가집 뜰 안에서는 전선 위문단 일행이 할아버지 한 분을 둘러 싸고 적의 일시적 강점 시기 원쑤들의 만행과 그를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는다。

무대는 모두들 원쑤들에게 학살 당

한 애국자 합동 묘지로 찾아 떠나는 장면에서 막이 내렸다。

다음 장면은 ○○ 전선의 무명 고지에서였다 무대 왼편에는 포탄에 맞아 절반이 부러져 달아난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지난 날의 모진 싸움을 말해 주는 듯 땅에 뿌리를 뻗치고 서 있다。

무대 한 복판에는 적은 무대가 있고 그 곳에서 선물 증정식이 진행되고 있다。 명순 동무의 인사의 말이 끝나자 곧 선물 전달이 있었고 뒤이어 ○○ 부대장 아저씨로 분장한 순희동무와 김락홍 영웅으로 분장한 혜자 동무로부터 답사가 있었다。그리고 계속하여 위안 프로그람에 의하여 합창,독창,무용,시 랑송이 벌어졌다。

전체 인민 군대 아저씨들은 박수 갈채로써 이들을 환영하였다。어떤 아저씨들은 도중에 무대에 뛰여 올라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었다。 참으로 모두들 흥서운 시간을 보냈다。

「다음은 김락홍 영웅 아저씨께서 전투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숙 동무의 제의였다。

위문단원들은 물론 전체 아저씨들까지 환영한다고 웨쳤다。

김락홍 영웅 아저씨로 분장한 혜자 동무가 웃음을 지어 가면서 일어섰다。

「동무들의 요구대로 그럼 변변치 못하지만 983•1 고지에서의 전투 이야기를 하여 드리지요…」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983•1 고지는 우리 수송로의 귀중한 갈래점이였습니다。 만일 적이 이 고지를 점령한다면 우리의 수송은 끊기우고 우리 전선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판이였습니다。

이 고지를 지켜 내려면 이 고지의 량켠으로부터 적진을 향하여 뻗어 내린 삼각 고지와 정면 고지를 적의 손에서 빼앗아 내야 했습니다。

이 중요한 임무를 받은 나는 여덟명의 습격조원을 데리고 밤길을 더듬어 갖은 난관과 싸우며 삼각 고지 턱 밑인 정면 고지 비탈이에 다달았습니다。

그곳엔 적들이 물샐틈없이 지뢰와 철조망을 늘여 놓았겠지요。 그래서 나는 앞장에서 이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손더듬해 가며 파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마침 적 전호 가까이까지 기여 오르는데 성공하자 허리에 찼던 수류탄을 뽑아 적 전호 속에 일제히 불벼락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 되였다。 정면 고지의 적들을 소탕하고 완전히 점령한 다음 숨돌릴 사이도 없이 곧 삼각 고지를 다가 오르던 이야기며 삼각 고지에서 어마어마한 적의 경계망을 뚫고 적 보초 한놈을 사로잡아 적정을 알아낸 다음 적 대대 본부와 적 화점을 소멸하기 위하여 습격조를 둘로 나누어 적을 습격하던 장쾌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기쁜 얼굴로 하늘을 쳐다 보며

「우리는 그 고지에서 밝아 오는 아침 햇발에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리며 서로 껴안고 공화국 만세를 불렀습니다。 참으로 그때는 기뻤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끝냈다。

듣고 있던 동무들은 모두 〃와!〃하고 함성을 올렸다。 그리고 김락홍 영웅 아저씨로 분장한 혜옥 동무에게 꽃다발을 안겨 주었다。

다음엔 ○○ 부대장 아저씨로 분장한 순희 동무가 일어서면서 굵직한 목소리로 「동무들! 이번엔 내가 한마디 이야기하지요。 그것은 얼마 전에 있은 854•1고지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모두들 다시 조용해 졌다。

「이 전투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영웅 신기철 분대장과 특히 소년단원이였던 영웅 박원진 전사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원진 동무는 부대에서 꼬마 전사라고 불리우며 귀염을 받던 18세의 용감한 민청원이였습니다。

그는 항상 전호 속에서도 자기가 학교에서 소년단 생활을 하던 이야기를 큰 자랑꺼리로 전우들에게 들려 주었고 소년단 행진가를 늘상 즐겨 불렀습니다。

그는 김창걸•김옥근 영웅들의 전투기를 항상 깊이 연구했고 마뜨로쏘브의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만일 내가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는다면 적이 나의 시체를 화구에 밀쳐 내고 또 다시 사격을 하겠지?〃 하고 동무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고 하였습니다。

우리 부대에는 어느 날 상부에서 명령이 내렸습니다。그것은 1952년 9월 22일 새벽 한시를 기하여 854•1 고지를 점령하라는 중요한 전투 명령이였습니다。

이 중요한 전투 임무를 성과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부대 민청원들은 총회를 열고 이 전투에서 맹원들이 할 바 과업을 토의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박원진 전사는 자기의 각오를 토론에서 굳게 다지였습니다。

마침내 9월 22일 새벽 한시 돌격의 신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라팔 소리와 함께 〃돌격! 앞으로!〃 〃만세!〃 소리가 뒤섞끼여 하늘 땅을 울렸습니다。」

○○부대장으로 분장한 순희 동무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막이 내렸다。

〃꼬마 전사는 어떻게 싸웠을까?〃 하고 서로들 이야기를 주고 받고 하면서 막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막이 열리자 무대 한 쪽에 854•1 고지의 적 화점 두개가 보이는데 미친 듯이 불을 뿜고 있다。 무대의 다른 한 편에는 우리 습격조원들이 만세를 부르며 돌격을 감행하고 있는 장면이 벌어졌다。

원쑤들의 모진 사격은 우리 부대의 돌격을 멈추게 하였다。이때 앞장에 서서 돌격하던 당원인 제3 분대장 신기철 아저씨로 분장한 순옥 동무는

『당원들이여! 나서라!당원들이 점령 못할 곳은 한나도 없다。나를 따라 앞으로!』하고 웨치면서 적 고지로 기여올라 갔다。적의 화점 30메터 앞까지 다가 선 그는 두개의 수류탄

을 적 화점을 향하여 힘껏 던졌다。그러나 적 화점에서는 중기가 더욱 사납게 짖어댔다。

〃저 놈을 부셔야 한다。그리하여 동무들의 돌격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이미 적탄에 오른 다리를 부상 당한 그는 자기의 가슴으로 적 화구를 막을 결심으로 우박 같이 퍼 붓는 적탄을 뚫고 한치 또 한치 적 화구를 향하여 기여 올랐다。

『전우들이여! 나는 끝까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싸우련다。당원 신기철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하였다고 전해 달라!』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자기의 심장으로 적의 화구를 막았다。적의 중기는 멎었다。우리 전우들은 세번째 돌격을 감행했다。

그러나 적의 화구는 또다시 불을 뿜어 우리의 돌격은 다시 정지 당하였다。

이것을 바라 보고 있던 박원진 전사로 분장한 정자 동무는 입술을 깨물면서 굳은 결심을 다졌다。

그의 눈 앞에는 김창걸, 김옥근 영웅들과 마뜨로쏘브의 얼굴이 얼핏얼핏 지나가고 자기를 항상 사랑해 주던 신기철 분대장의 얼굴이 떠 올랐다。

그리고 우리 야전 방송국에서 보내는 〃결전의 노래〃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 왔다。

〃가렬한 전투의 저기 저언덕
피흘린 동지를 잊지 말아라
쓰러진 전우의 원한 씻으려
나가자 동무여 섬멸의 길로〃

수류탄을 힘 있게 틀어 쥐고 그는 우뚝 일어 났다。그리고

『민청원들이여!나서라! 민청원들의 힘으로 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로동당원들의 뒤를 따라 앞으로!』마지막 한 마디를 웨치고 미친개 같이 짖어대는 적 화구에 뛰여 들어 두 손으로 적의 총신을 틀어 잡은 다음 자기 가슴으로 적의 불아구리를 막았다。

돌격로는 열리였다。

〃만세! 만세!〃 련달아 일어나는 함성과 함께 우리 용사들은 고지로 돌격해 올라 갔다。

그리하여 30분 동안에 854·1 고지를 점령하고 적 1,350명을 살상하고 61명을 포로하였다。

고지에서는 전우들이 공화국기를 높이 높이 휘날리며

『당원 신기철 동무와 민청맹원 박원진 동무의 영웅적 위훈을 본받자!』『신기철 동무와 박원진 동무들처럼 용감히 싸워 승리하자!』고 맹세를 하였다。

멀리서 계속 울려 오고 있는 결전의 노래 소리에 모두들 목청을 높이여

〃피흘린 동지를 잊지 말아라
쓰러진 전우의 원한 씻스으려
나가자 동무여 섬멸의 길로〃

노래 소리는 줄기 차게 흘러 흘러 삼천리 강산을 뒤덮는듯 시프였다。

귀환 보고회는 끝났다。전체 단원들은 김락홍, 신기철, 박원진 영웅들처럼 자기들도 조국을 위하여 용감하고 대담한 사람이 될 것을 한결 같이 결의하였다。원쑤들의 새로운 진공을 기도하는 오늘 전선 아저씨들에게 못지 않게 결전에로 궐기하여 철통 같이 후방을 지키며 학과 학습에서 빛나는 성과를 쟁취할 것을 몇번이고 몇번이고 다짐하였다。(끝)

동화

따발총 이야기

강 효 순

『절꺼덕』

하고 안전 장치를 시험하는 바람에 따발총은 까ㅁ짝 놀라 깨였습니다。

『음! 이 놈도 제법 잘 되는 걸!』

머리가 구실구실하고 수염이 가득 난 아저씨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따발총은 눈이 동글하여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둘러 보았습니다。굉장히 넓고 높은 방인데 가지 가지의 괴상한 동무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자기와 꼭 같이 생긴 동무들도 수없이 많이 쌓여 있는가 하면 통이 무척 걸고 삐죽한 놈이 두통 달구지 위에 넌즈ㅅ 올라가 앉고 점잖게 천정을 노리고 있는 놈도 있습니다。

『저 놈들이 대체 무엇하는 놈들일까。참 이상하게도 생겼는데!』

따발총은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종알댔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게 없어。모두들 너의 동무들이니까。』

털보 아저씨는 기름 묻은 천으로 따발총의 몸뚱이를 깨끗이 닦아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아저씨가 나를 만들어 주었지요?』

하고 따발총이 물었습니다。

『나 혼자서 만든 것이야 아니지。우리 여러 로동자들이 만들었으니까。』

하고 털보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그럼 저 동무들도 아저씨들이 만들었겠구만요。』

『물론 우리들이 만들었지。』

따발총은 다시 한번 사방을 둘러 보았습니다。

『이 많은 동무들이 그러면 모두 우리 형제들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니 따발총은 아주 마음이 든든하여 졌습니다。

『너희들이 나가면 우리의 원쑤를 더 많이 갚게 되겠지。』

털보 아저씨는 혼자ㅅ말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아저씨의 원쑤가 누구일까。』

따발총은 혼자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생각해 보았습니다。그러나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의 원쑤가 누구야요。』

따발총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 며누리, 손자를 죽이고 우리 집까지 불 사른 미국놈이 우리 원쑤이지。내 막내도 원쑤를 갚으려 나갔단다。』

털보 아저씨는 이 말을 하며 몸을 후들후들 떨었습니다。

「미국놈은 아주 나쁜 놈이로구나。저렇게 착하고 부지런한 아저씨네 가족을 어째서 죽인담。고약한 놈 같으니…。이놈 내 앞에 보이기만 해 봐라。」

따발총도 주먹을 불끈 쥐고 파르르 떨었습니다。

「아저씨 걱정 마세요。꼭 원쑤를 갚아 드릴 테니까요。」

따발총은 이렇게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였습니다。땅 속 수십길 밑에 굉장히 크고 넓은 창고 문이 「스르룽」하고 열리였습니다。

「여기 있는 무기를 모두 끄내시요。빨리 전선으로 보내야겠소。」

번쩍하는 별을 세개나 단 군관 아저씨의 말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창고에서는 떠들썩 하였습니다。

「음 그러면 그렇지。언제나 창고에만 갇혀 있을 테야?」

「어서 달려 가서 한번 솜씨를 내야겠는데。」

「음 오늘이야 우리에게도 때가 돌아 왔구만 그래。」

재꺼덕거리며 모두들 떠날 준비에 아주 분주하였습니다。

숨 가쁘게 맨 밑 상자에 들어 있던 따발총도 어깨가 으쓱하여 졌습니다。

「이 놈 미국놈아 내 앞에 나서기만 해 봐라。」

따발총은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둘러 보았습니다。

「우르릉」하고 자동차가 떠났습니다。

하늘에 대룽대룽 매달린 별들도 아마 따발총이 가는 길을 밝게 비추어 주려고 애쓰는 모양인지 유달리 반짝거리는 것이였습니다。

길가에 선 나무 가지들도 너풀너풀 춤을 추며 따발총을 환영하는 듯 하였습니다。

따발총은 처음으로 보는 산과 강, 그리고 벌판과 골짜기를 좀 자세히 바라 보고 싶었습니다。그러나 어둠 침침하여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잘도 달아나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캄캄한데 어떻게 그렇게 잘 달아나냐。아마 올배미 눈을 박은 모양이로구나。」

하고 따발총은 담뿍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원쑤놈들이 아무리 우리들을 못다니게 하려고 하여도 문제 없다니까。」

자동차는 더욱 신이 나서 씽씽 달아 납니다。

따발총은 「원쑤놈」이란 말을 듣고 까므락 놀랐습니다。

「자동차의 원쑤는 또 누굴까。」

따발총은 한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원쑤는 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 말을 들은 자동차는 하두 어처구니 없는 것을 묻는다는 듯이 따발총을 흘낏 바라 보더니 대답합니다。

「누구야 미국놈이지。」

따발총은 더 묻기가 거북하여 자동차를 빤히 바라 볼 뿐이였습니다。

자동차는 천천히 말을 계속합니다。

「미국놈들은 우리 동무들을 얼마나 불사른지 모른단다。그리고 내 몸둥이를 살펴 보아라。얼마나 상처를 입었나。그것이 모두 미국놈들 한테 입은 상처야。」

자동차는 눈물이 글성글성해 지는 것입니다。

날이 훤히 밝아 오기 시작합니다。여

우울이한 놈이 달아나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따발총은 무척 기뻤습니다。

자동차는 만속력을 내여 씽씽 달아 납니다。

산 언덕을 지나 낭떠러지를 돌 때였습니다。높은 산에서 굴어 떨어진 큰 바윗돌이 벼랑 아래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개놈들 여기까지 쳤구나。」

자동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한구비를 돌자 이번에는 중둥이 날아난 큰 나무가 흐득흐득 느껴 웁니다。

「저 동무들은 어째된 영문이냐。」

하고 따발총이 물었습니다。

「모두 미국놈들이 그렇게 했단다。」

하며 자동차는 몸을 후루루 떱니다。

「그래 그런 놈들을 그대루 둔단 말이야?」

따발총은 이를 뽀드득 갈았습니다。

「그뿐인 줄 아냐。저기를 좀 바라 보아라。」

자동차는 건너편을 가리킵니다。따발총은 그 쪽을 바라 보았습니다。큰 불 안에 있는 집들이 한 집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 졌습니다。따발총은 오싹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기 어쩐 일이야!」

따발총은 정신을 잃은 듯이 멍하니 바라 봅니다。

「미국놈들은 저기다가 폭탄을 수 없이 많이 떨어뜨렸단다。그것이 한 두번만인 줄 아냐。벌써 수십번이였단다。그럴 때마다 어린애들과 늙은이들이 얼마나 죽은지 모른단다。」

자동차는 눈물을 주루루 흘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도 이전에 미국놈들이 사는데 가서 폭탄이 란놈을 떨어친 적이 있는게지?」

「천만에! 그렇다면야 억울할 것도 없지。」

자동차는 따발총을 흘깟 바라 보더니 말을 계속합니다。

「이 고장 사람들은 모두 부지런하고 착한 사람들이란다。싸움을 싫어하고 시기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뿐이란다。그러니까 고기떼들도 이 고장으로 찾아 들고 새와 짐승들도 여기로 모여 들고 풀과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곡식과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여 이 고장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주 넉넉하게 되여 참 살기 좋게 되였단다。그러니까 놀고 빼앗아 먹기 좋아하는 미국놈들은 이 고장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그런단다。」

자동차도 속이 타는 모양인지 냇가에 가서 물을 한참 꿀꺽꿀꺽 마시더니 말을 계속합니다。

「그렇지마는 어림 없는 생각이지。미국놈들이 아무리 달려 들어도 이 고장을 빼앗지 못한단다。모두들 우리들처럼 이렇게 들고 일어섰는데 제놈들이 어디라구。」

자동차는 더욱 신이 나서 달아납니다。

따발총은 후닥다 일어섰습니다。굳게 서고 사방을 휘둘러 보았습니다。지금이라도 미국놈이 얼핏 보이기만 하면 대번에 달려 들고 싶은 생각이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털보 아저씨의 원쑤! 바위를 깨뜨리고 나무 허리를 자른 원쑤! 집을 허물고 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쑤를 내가 꼭 갚아 줄 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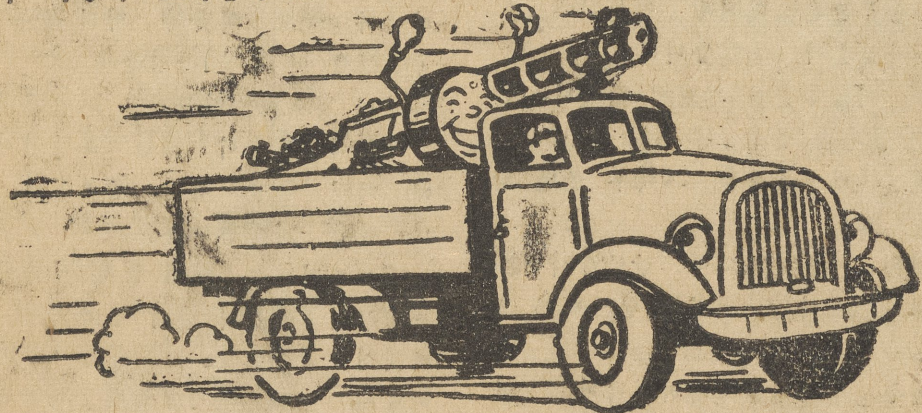
하고 따발총이 소리 높이 웨쳤습니다。

따발총의 말이 떨어지자 어데서 우렁찬 소리가 들려 옵니다。

「내가 꼭 갚아 줄 테다。」

이 소리는 한두명이 하는 소리가 아

어왔습니다. 따발총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리번두리번 사방을 둘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도 합니다. 이 소리는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번져 나가며 소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따발총이 타고 있는 자동차에 실은 많은 따발총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 뒤의 자동차, 또 그뒤의 자동차, 그리고 또 그 뒤의 자동차 이렇게 끝 없이 달려 오는 자동차에서 소리 지릅니다. 이 소리를 맞받아 흘러가는 강물과 흔드적거리는 풀포기들과 너풀거리는 나무가지들, 그리고 바위들과 젊승들까지 이렇게 소리칩니다.

따발총은 아무런 놈이라도 무서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구석으로 원수놈들이 기여 오르는가 노려 보면서 달려 갑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따발총은 꼬마와 같이 싸움터로 나가게 되였습니다. 꼬마는 따발총을 부더안고 끝없이 반가워합니다.

「잘 싸워다오. 형님과 아주머니와 조카를 죽인 원쑤를 꼭 갚아야 한다. 나도 아버지에게 지지 않게 싸울 작정이니까.」

꼬마는 먼 하늘을 바라 보며 입술을 따로도 떠는 것입니다. 따발총은 꼬마를 유심히 바라 보았습니다. 어쩐지 어디서 본 것만 같았습니다.

「꼬마 동무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꼬마는 잊었던 것이 생각 나는 듯이 깜짝 놀라며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머리가 구쓸구쓸하고 수염이 많이 났는데 따발총을 만드는 로동자야.」

이 말을 들은 따발총은 후닥닥 꼬마의 품 안으로 달려 들었습니다.

「이게 어쩌된 일이오. 그 아저씨가 바루 나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꼬마는 따발총을 부더안고 따발총은 꼬마의 품에 안기여 한갑다고 빙빙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어느날 밤이였습니다. 따발총은 꼬마의 어깨에 업히여 길을 떠났습니다. 산을 돌고 고개를 넘고 물을 지나 자꾸만 달려 갑니다. 따발총은 앞 뒤와 좌우를 한번 둘러 보았습니다.

아 그랬더니 어느 사이에 모여 들었는지 자기 동무들이 수풀처럼 꽉 들어차서 달리고 있는게 아니겠어요?

따발총은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음! 오늘이야 원쑤를 갚는가부다. 솜씨를 내야겠는데….」

따발총은 단단히 결심하였습니다.

부대장의 명령에 의하여 많은 따발총들은 모두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아래에는 아찔아찔한 낭떠러지인데 그 밑에는 넓은 길이 있고 길 맞은 편에는 강물이 출렁출렁 흘러 내립니다.

「왜 여기에 숨어 있나요.」

하고 따발총이 물었습니다.

꼬마는 따발총을 꾹 찌르며 멀리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스름 달빛 아래 따발총은 가리키는 편을 바라 보았습니다.

그런데 큰 일 났습니다. 키가 서낭 같은 놈들이 총칼을 메고 물결처럼 밀려 오는게 아니겠어요.

「저게 무엇들인가요.」

하고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그게 원쑤 미국놈들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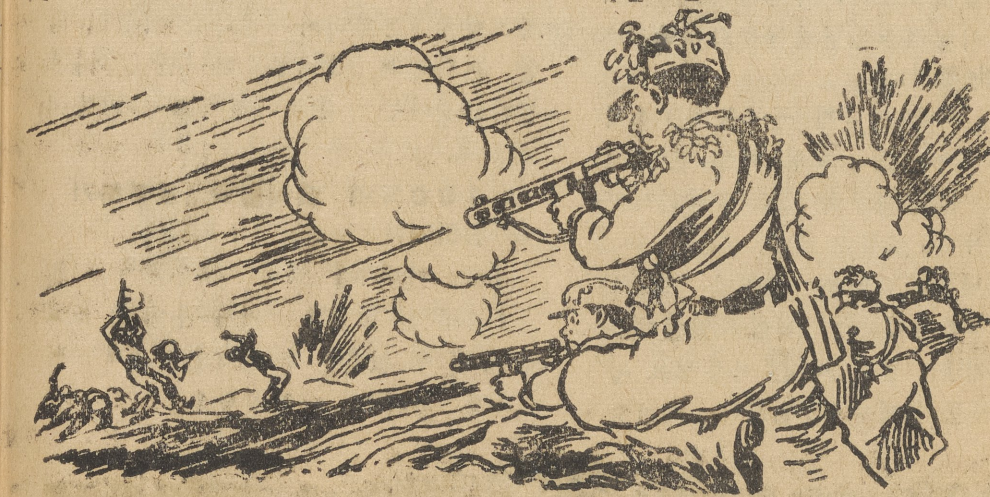
이 말을 들은 따발총은 눈에서 불이 번쩍 일었습니다.

「저 놈들을 그저 둔단 말이야?」

따발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를 꽥 지르고 달려 들려고 하였습니다.

꼬마는 깜짝 놀라며 따발총을 꼭 붙어 잡습니다.

원쑤놈들은 우쭐우쭐하며 점점 가까이 옵니다. 따발총은 참을래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뿌리치고 달려 들어 모주리 쳐죽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꼬마는 도무지 놓아 주지 않습니다.

따발총은 찌근거리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놓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원쑤놈들은 바루 발 앞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쏘앗」하는 소리가 산판을 울리었습니다.

「뚜루루두룩」

하고 따발총은 불을 내 뿜었습니다.

낭떠러지에 빈 틈 없이 숨어 있던 동무들도 일제이 불벼락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원쑤놈들은 그 자리에 쓰러지는 놈, 총칼을 내 던지고 도망하는놈, 강물로 텀벙 뛰여 드는 놈 야단법석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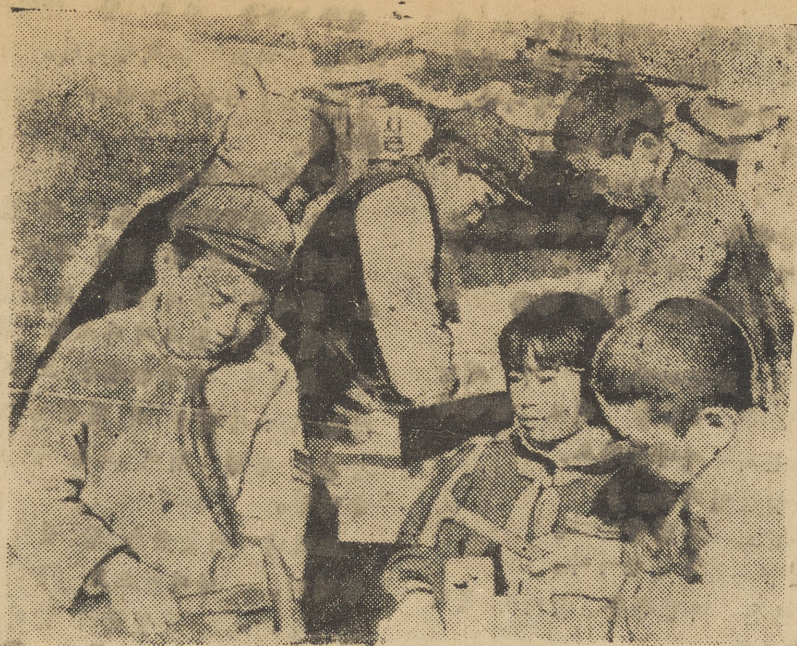
그러나 이놈들은 살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낭떠러지으로 붙어서 도망하려는 놈에게는 바윗돌이 굴어 떨어지며 깔아 죽입니다. 강물로 들어간 놈들은 산데미 같은 물결이 덮어 누릅니다.

따발총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하여 불벼락을 퍼 부었습니다. 물결처럼 밀려 오던 원쑤놈들은 한놈도 남지 않고 모두 쓰러졌습니다.

꼬마는 이마를 씻고 나서 따발총을 어루 만져 주었습니다.

「이놈들 같으니 어디 또 내 눈 앞에 보이기만 해라.」

따발총은 죽어 너머진 원쑤놈들을 무서운 눈초리로 노려 보았습니다.

꼬마와 따발총은 수 많은 동무들과 같이 만세를 부르며 오던 길로 다시 도라갔습니다.

중앙 모범 소년단의 영예를 지키여

—황해도 OO시 제2 인민 학교 소년단에서—

김 병 의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손으로

「야! 톱질하기도 헐하지 않구나!」

「그럼 나하구 교대할까 」

「아니야! 전선의 아저씨들을 생각하면 이것쯤야 뭐…」

빽한 벽돌로 쌓아 올린 토굴 교실 안에서는 톱질 소리, 마치질 소리에 뒤섞이여 이렇게 소년단원들의 말 소리가 들려 왔다。

이들은 지금 지난번 원쑤놈의 폭격에 일부 파괴된 교실, 책상, 걸상, 교편물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수리하느라고 한창이다。

바깥 날씨는 매우 차건만 이들의 이마에는 질펀히 땀이 배여 있었다。

밉살스러운 원쑤놈들은 아름답고 굉장하던 이들의 학교를 불살라 버리고도 무엇이 부족하여선지 단원들의 손으로 다시 꾸며 놓은 토굴 교실에다 또 다시 폭격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원쑤놈들이 제아무리 지랄을 쳐도 중앙 모범 소년단의 영예를 지닌 이곳 소년단원들의 불타는 의지는 조금도 굽힐 수 없었다。 푸른 넥타이로 자랑스럽게 공부하며 일하는 이들의 얼굴 미다에는 올해는 더 큰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굳은 결의로 가득차 있었다。

☆100%의 출석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좀 어때?」

「이전 일 없어! 며칠 후이면 학교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애! 그새 뒤떨어진 학과는 어떻건담!」

「너무 조급해 하지 말어 무엇보다두 상처가 먼저 나아야지!」

오늘도 단위원 김양자 동무와 제6분단 위원장 김영자 동무는 자기 반원들과 함께 원쑤놈의 지난번 폭격에 상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누워 있는 한소자 동무를 찾아 온 것이였다。

이들은 이미 이 문제를 분단 총회에서 토론하고 자기들 집에 있는 붕대와 약들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수 차례에 걸쳐 찾아와 그를 위로하였고 때로는 그날 배운 학과 이야기 단 생활에서 재미난 일들은 이야기해 주군 한다。

전체 분단원들의 높은 학업 성적을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단원들이 모두 하루의 결석도 없이 학교에 나오도록 하는 문제였다。때문에 단 위원회에서는 매개 단원들이 분단을 뜯어 맡고 매개 반에 이르기까지 늘 순회 지도하면서 그 분단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때에 처리하여 한 사람의 결석생도 내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결과 심지어 제2 분단 제6반 김덕화 동무는 어머니가 병환으로 누워 계시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밥을 지어 먹으면서 하루의 결석도 없이 학교에 나옴으로써 다른 동무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이곳 소년단원들은 원쑤놈의 폭격이 심한 조건 하에서도 갖은 곤난을 이겨 내여 1학기 초에 92%로부터 100%의 출석률을 보장한 제2 분단을 비롯해 1학기 초 전단적 평균 88•5%로부터 95%의 좋은 출석률을 거둔 것이다。

☆ 학업 성적을 높이기 위하여

이곳 소년단에서는 학업 성적이 낮은 동무들과 락후한 과목들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1 분단에서의 산수과 이야기 모임에서였다。 어린 수학가 김연길 동무는 총명한 눈방울을 또릿또릿 굴려가며 자기 경험을 발한 。

「나는 응용 문제를 풀 때는 늘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군 해…。」

그는 미리 준비해 놓았던 삼각형의 면적 구하기 공식 도해를 꺼내놓았다。

『삼각형의 면적 구하기 공식 〃밑변×높이÷2〃밑 변에다 높이를 승해 나온것은 즉 그 3각형의 밑변(가로)과 높이(세로)가 같은 구형의 면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반 나누어야 삼각형의 면적이 된단 말이야。」

그는 이렇게 그림을 차근차근 짚어가며 설명하는 것이였다。

이 분단에서는 산수과 성적이 가충 낮았기 때문에 이미 김재복 동무의 〃4측 문제 계산법〃 등을 비롯해 세 차례에 걸쳐 산수과 이야기 모임을 조직했던 것이다。그 결과에 지난 1학기 말에는 산수과 성적이 낮은 동무가 9명이나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동무가 한사람도 없게 되였다。

또한 제2 분단에서 국어과 성적이 가장 낮은 제3 반에서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과목에 한해서만 학과 토론회를 진행하던 것을 고치고 얼마전부터는 앞으로 배울 과목에 대해서까지도 초중 학생들이나 부형들께 물어 가지고 예습 토론들을 진행한다。 그리고 자기들 자체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물어서 해결한다。 이리하여 저

난 1학기 말까지는 국어과 성적이 락후하던 오광재, 조승윤 동무들이 지금은 4계단의 수준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지금 이곳 소년단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따뜻한 봄날을 기다려 지리과, 력사과, 리과 연구 재료로써 〃수양산에서〃, 〃정각사〃 등 제목의 학과 이야기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

☆영웅들의뒤를 따르기 위하여 제8분단 3반에서의 읽은 책 토론회였다. 『오늘과 같이 추운 날도 불과 령하 10도 밖에 안되는 데…. 령하 20도라면 얼마나 추웠을까?』

소년단 제10호국제주의 전사 〃라성교 형님〃에 대한 반장 봉수 동무의 이야기를 듣고 박광자 동무는 이렇게 감탄하는 것이였다. 박광자 동무뿐이 아니라 모두들 감탄해 마지 않았다.

이야기를 끝낸 후 한선비 동무의 제의로 그들은 지금 중국 호남성 종산향 동자촌에 계시는 라성교 아저씨의 아버지 라질개씨와 그 마을 소년 아동대 동무들에게 〃라성교 아저씨의 뜻을 이어 싸우겠습니다〃라는 편지를 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곳 소년단원들은 누구나 다 독서를 즐긴다. 제1 분단 김경덕동무는 〃조야와 수라〃를 읽었고 2 분단의 김영길, 김성도, 리종섭 동무들은 〃조국의 영웅들〃을 비롯해서 〃동요 동시집—소년단 깃발 아래〃와 〃기다리던 날〃 〃소년 근위대〃 〃싸우는 세계 소년들〃등의 책들을 죄다 읽었다.

이들은 자기들이 읽은 책들을 가지고 단 위원회 계획에 의해서 분단별로 조직되는 읽은 책 이야기 모임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 소년단원들은 이처럼 책을 통해서 영웅들을 본 받을 뿐만 아니라 직접 영웅들과 모범 전투원 영예 군인 아저씨들과의 좌담회들을 각 분단 또는 반별로 진행하고 있다.

반장 김희자 동무가 지도하는 제6 분단 2반에서는 전선에서 ‥도라오신 김재복 동무의 누님 김주을 상등병을 모시고 언니가 전사의 영예 훈장 제 1급과 군공 메달을 둘씩이나 타던 이야기를 들었다.

제1 분단에서는 00리에 있는 김기운 영웅의 어머니를 방문하여 영웅이 어린 시절에 자라던 모습을 들었으며 또한 제2 분단에서는 00리에 있는 영예군인 합작사를 방문 위안하며 전투담을 들을 것이 계획되고 있다.

체육대에서는 겨울 방학 동안에도 선산리 저수지에서 분단 대항 썰매 기기, 눈 싸움 등 유희를 조직했지만 봄철에 들어서면서는 철봉, 평행봉, 조마, 평행대, 그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등산 탐험대를 조직하여 수양산의 자연 지리와 명승 고적들을 탐험할 계획도 세워지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우리 후방에 기여 든 간첩들을 적발 체포 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경각성이 높으며 공부한 여가에 소년 자위대 사업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이곳 소년단원들은 올 해를 더 큰 승리를 향하여 씩씩하게 싸워 나아가고 있다.

☆

우리들의 반간첩 투쟁

어느날 이른 아침 형민이네 반에서 조기회를 하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쌕쌕기〃 비대가 앞 산을 넘어 오더니 마을로 내려 끈기 시작했습니다. 형민이와 함께 반원들은 재빨리 밥둑에 대피하면서 증오스런 눈초리로 원쑤를 쏘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 일일까요?

폭격도 하지 않았는데 앞 산 봉오리에서 흰 연기가 떠오르고 있지 않겠어요.

『저게 무슨 연기일까? 이른 아침부터』

문뜩 그의 머리에는

『저게 간첩들이 적기에 신호하는 연기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자 형민이는 곧 춘삼 동무를 비롯한 세명의 반원들에게 이 사실을 내무원 아저씨들에게 련락할 것을 분공 주고 곧 자기는 정식 동무를 데리고 살금살금 연기 오르는 맞은편 산 봉오리로 올라 갔지요. 형민이와 정식이는 바싹 소리조차 내지 않으면서 큰 바위 뒤롬에 숨어서 연기가 오르던 산 봉오리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눈에 띄운 그 곳에는 인민 군대 세사람이 불을 피우고 의복을 말리우고 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민 군대가 왜 이 아침에 산에 올라 와서 불을 피우고 옷을 말리고 있을까?』

『아니다. 원쑤들은 흔히 인민 군대로도 가장을 한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시였지.』

『그렇다. 간첩이 틀림 없다!』

다음 순간 형민 동무는 정식 동무를 내무원 아저씨들을 안내하기 위하여 마을로 내려 보내고 자기 혼자서 이상한 인민 군대 세 사람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 정식 동무의 안내로 내무원 아저씨들이 형민 동무가 숨어 있는 바위 뒤에까지 올라 왔습니다.

형민 동무는 내무원 아저씨의 지시대로 용감하게 산 봉오리로 올라 가면서

『인민 군대 형님들 수고하십니다.』

하고 깨웃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상한 인민 군대들은 놀란 얼굴에 억지로 웃음을 띄우노라고 애를

오는 양 싶었습니다.

「인민 군대 형님들, 어떻게 서리를 맞으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무엇이 응 그래 어제 간첩을 잡으려 올라 왔다가 그놈들을 잡지 못하고 밤을 새워서 그렜다. 그래서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 놓고 의복을 말리우는거야….」

「인민 군대 형님, 그렇게 고생 마시고 저의 집으로 가서 쉬세요.」

하는 형민 동무의 말에 수상한 인민 군대들은 당황한듯

「좋다, 좋아. 걱정 말아.」

그 말에 형민이는 보채며

「그러지 말고 어서 가세요.」

하고 그랬더니 그들은 더욱 서둘면서 배낭을 둘러메고 도망치려고 하는 양 싶었습니다.

이 때에 「손 들엇」하고 벼락 같이 고함치며 내무원 아저씨들이 뛰여 나왔습니다. 갑자기 놀랜 그들은 두 손을 추켜 들고 벌벌 떨고만 서 있었습니다.

이 놈들은 인민 군대로 가장하고 후방에 잠복하여 간부들을 암살하고 인민들의 재산을 빼앗으며 거짓 선전을 퍼쳐서 후방을 교란할 목적으로 기여든 간첩이였습니다.

× ×

동무들! 간첩은 이와같이 우리의 전선에 숨어서 자기들의 더러운 꿈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나 깨나 원쑤들에 대한 경각성을 높여 〃우리 소년단원이 있는 곳에는 한놈의 간첩도 숨을 곳이 없다〃는 구호대로 기여드는 원쑤들을 한놈도 남김 없이 소탕합시다. 그리하여 전선 형님들의 영웅적 투쟁에 보답하여 싸워 나아 갑시다.

황해도 ○○인민 학교 소년단
리 금 선

☆ 항상 경각성을 높이자 ☆

장해권 동무는 반원들과 함께 어느날 약초 채집과 분단 실에 땔 나무를 하려 뒷 산으로 올라 갔습니다. 반원들은 나무 하는데 정신이 팔려 어느새 깊은 산 속까지 들어 갔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풀 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고 발자국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반원들은 모두들 〃무엇일까?〃하는 불안과 의심을 품은 눈치로 서로 마주 보기만 했습니다. 장해권 동무의 머리에는 다음 순간 얼핏 〃어젯 밤 적기가 날아 왔을 때 전선으로 달리던 자동차에 폭탄을 퍼붓게 신호탄을 올린 간첩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떠 올랐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반 모임을 마치고 도라 오던 길에서 발견한 그 신호탄이 바로 이 산 속에서 올랐던 것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 놈일지도 몰라? 만일 그 놈이라면 어떻게 할까?〃

장해권 동무는 이리 저리 생각하다 반원들을 모은 다음 정자 동무와 길성 동무를 부락 자위대에 보내고 나머지 동무들과 함께 수상한 소리가 들려 온 풀숲을 감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약 한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자위대원 아저씨들과 함께 그 수상한 소리가 들려 온 풀숲을 주의 깊게 수색했습니다. 풀숲에는 큰 바위가 있고 그 밑에 구뎅이에 적 간첩 한 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후 내무원 아저씨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놈은 그 전날 밤 신호탄을 올린 간첩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그 후 더욱 경각성을 높여 반 간첩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곡산군 ○○ 인민 학교 소년단
위원장 리 길 녀

우리 인민군대의 장비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의 환경 속에서 창건 5주년을 맞이하는 영웅적 조선 인민군은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부름에 따라 원쑤들이 기도하는 새로운 공세를 분쇄하고 원쑤들을 멸망의 구렁이로 쓸어 넣기 위한 제반 준비를 튼튼히 갖추고 있다.

조국 해방 전쟁 기간에 우리 인민 군대는 원쑤들의 어떠한 발악적 기도라도 능히 분쇄하고 마지막 한 놈까지 철저히 격멸 소탕할 수 있는 풍부한 전투 경험을 쌓았으며 강력한 무장으로 장비된 강철의 군대로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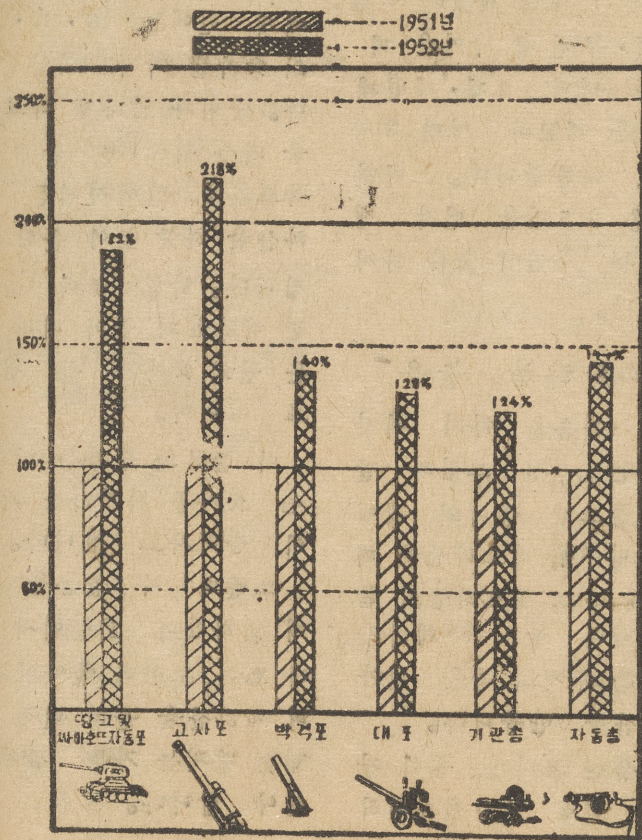
조국 해방 전쟁 기간에 우리 인민 군대는 량적으로 3배나 장성되였다.

우리 인민 군대의 무장은 1952년에 와서는 1951년에 비하여 1개 보병 사단의 화력은 160%로 장성되였으며 매개 사단이 각종 무기로써 1분 동안에 발사할 수 있는 탄환은 140%로 증가되였고 보병 사단의 자동 화력은 1951년에 비하여 1952년에 와서는 141%로 증가되였다.

지난 기간에 인민 군대는 공군을 비롯한 기계화 부문에 있어서도 놀랠만 한 발전을 가져 왔다.

이제 1951년부터 1952년까지의 우리 인민 군대의 무장력의 장성을 각종 무기 별로 본다면 다음과 같다.

자동총 144%
기관총 124%
대포 128%
박격포 140%
고사포 218%
땅크와 싸마호뜨 자동포 182%로 각각 장성되였다.

이상과 같이 정예무기로 장성 강화된 현대적 우리 인민 군대는 원쑤 미제와의 결전에서 반드시 종국적 승리를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 비행기 놀음

이 놀음을 하기 위해서는 두터운 판자로 둥그런 판을 만들고 그 위에 넓은 널판자로 ㄱ자 기둥을 만들어 세웁니다。

ㄱ자 기둥의 높이는 20센치메터이고 너비는 15센치메터입니다。

이 ㄱ자 널판자에는 다시 적당한 간격을 두고 위로부터 길이 15센치메터의 널판자를 걸어 놓습니다。

이 널판자에는 위로부터 7센치메터, 밑으로부터 3센치메터 되는 사이에 5센치메터의 구멍을 만듭니다。그 구멍의 넓이는 3센치메터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합석으로 날개의 길이 4센치메터의 비행기를 만들어 길이 7센치메터 되는 극히 넓은 널판자에 못으로 박아 붙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 다음에는 놀음이 시작됩니다。

놀음은 비행기를 널판자에 닿지않게 구멍으로 께였다 도루 빼내기입니다。

만일 널판자를 닿지면 다음 동무에게 비행기를 넘겨 주어야 합니다。

이 놀음의 점수는 첫번째 구멍을 께였다 빼면 1점, 두번째 구멍을 께였다 빼면 2점, 세번째 구멍을 께였다 빼면 3점으로 계산합니다。그리하여 총 25점을 먼저 쟁취하는 사람이 승리 하게 됩니다。

△락하산 놀음

이 놀음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림과 같이 둥그런 종이의 갓에다 빙두루 실오리들을 께여 매고 그 실오리들의 끝을 한데 묶고 거게다가 적당한 무게의 돌을 달아 락하산을 만듭니다。

다음은 크다란 종이 장위에 직경 40센치메터의 원을 그리고 그 원으로부터 중심을 향하여 10센치메터에 하나씩 원을 그린 목표판을 만듭니다。

이 원은 그림과 같이 4개의 원이 될 것입니다。

제일 중심에있는 원안에는 10, 밖으로 나오면서 매개 원에는 5, 3, 1의 숫자를 각각 기입합니다。준비가 끝나면 목표판을 책상 위에 펴 놓고 그 목표판에 떨어지게끔 락하산을 하늘 높이 올려 던집니다。하늘 높이 올라간 락하산의 돌이 내려 앉은 원의 숫자가 곧 점수로 됩니다。

이 놀음의 승부는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사람이 승리자로 됩니다。

그런데 이 놀음을 놀때 락하산이 하늘에서 내려 오는 모양이 좋아야 하며 락하산을 올려 던질 때 힘껏 던지는 가를 감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차지

동요 나는 영웅 될란다

라진 00 인민 학교

리성룡

나는 나는 될란다
영웅 될란다
국기 훈장 금별 메달
가슴에 다는
나는 나는 공화국의
영웅 될란다

사냥 선수 2중 영웅
김기우 형님
나는 나는 본 받아
영웅 될란다

아침 저녁 새 잡이
고무총 사냥
으뜸 가는 훈련 계획
어기지 않고
백발 백중 사냥영웅
나는 될란다

동요 2.8절

장진 00 인민 학교 5의 가

주창유

오늘은 날맑은 2월8일날
우리의 명절이다
2・8절이다

군대가신 형님은 훈장을타고
나는나는 중앙 모범단원 되였지요
원쑤를 무찌르고 형님이 도라오면
누가누가 잘 싸웠나 내기할테야

오늘은 우리명절 2월8일날
즐거운 명절이다
2・8절이다

푸른하늘 맑은시내 우리조국을
목숨바쳐 지키는 우리군대 아저씨를
우리들도 소년단기 휘날리면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테야

원쑤는 우리 곁에도 있다

박 능 오

때…1953년 봄
곳…어느 농촌
나올이들
　　철이　소년단 반장
　　창수　소년단원
　　영덕　〃
　　영애　〃
　　혜순　〃
　　간첩　30세
　　숯 굽는 할아버지 55세
　　내무원　28세
　　자위대원　25세
무대…언덕

무대 오른 편에 숯굽는 할아버지 가 때때로 올라와 사는 조그만 초막이 있고 그 뒤로는 언덕바지로 되여 있는데 숯 가마의 일부가 보인다。 왼편으로는 거리로 내려 가는 길이 있고 늙은 소나무들이 무성했다。 무대 중앙을 가로 질러 멀리 높고 낮은 산들이 바라 보인다。

막이 오르면 초목이 푸르러가는 봄날, 무대 중앙에서 영덕이가 열심히 언덕 밑을 바라 보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가까이서 소년들의 노래 소리— 산새 우는 소리—。

영 덕　(그림을 손에 들고)
　　이만 했으면 됐겠지!
　　(오른 편에서 곽쟁이 들을 든 창수, 영애 등장)
영 덕　(뒤 돌아 보며)
　　영애야! 이만했으면 됐겠재?
영 애　어제 그 아저씨가 그려 달라던 그림이냐?
영 덕　응!
창 수　(그림을 들여다 보며)
　　영덕아! 너 이런 중요 도로와 저 공장 같은 걸 함부로 그려서 되니? 더구나 저 공장은 다른 공장과 달라서……。
영 덕　허지만 그 아저씬 여기는 처음 출장 나왔다면서 될수록 저런 공장, 다리, 도로, 창고 같은 목표될 만한 걸 그려 달랬거든。
창 수　아무리 그렇대두 너 생각 좀 해봐! 그래 어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중요 공장까지 그림으로 그려줘야한단 말이냐?
영 덕　헤이! 걱정 말어! 누군 생각이 없어 그런 줄 아—니! 난두 맨 첨엔 의심두 했어! 허지만 그 아저씨가 평양에서 오신 어떤 중요한 기관에 계시는 아저씨란 걸 알았거든?
영 애　그걸 네가 어떻게 다 알고있니?
영 덕　순길이 한테서 들었지 뭐! 그 앤 자기네가 국영 려관을 하니까 안다는 거야!
창 수　그렇지만 더 잘 알아 봐야 해!
영 덕　체ㅅ 너흰 쩍 하문 내가 하는 일엔 빈대야!
창 수　누굴 나무랠건 없어! 넌 아무 일에나 잘 생각두 않고 거저 덤비기만 하니까 그렇지? 생각 해 봐! 요새 미국놈들은 〃신공세〃니 뭐니 하구 개 지랄들을 치고 있는 때가 아냐?
영 애　얘! 영덕아! 그 그림은 찢어 팽개쳐라! (큰 일이나 난듯이)
창 수　너 요즘 미국놈들은 우리 후방에다 많은 간첩놈들을 들여 보내고 있다는 걸 잊었구나!
영 애　너 어제 단 벽보를 못 봤니? 〃원쑤는 우리 곁에도 있다〃는 것말야!
창 수　거게두 씌여 있는 것처럼 며칠 전에 저 매봉산에 놈들 간첩 두놈이 락하산을 타고 내린 걸 방앗간 할아버지와 3분단 성태가 붙잡았다고 하지 않언!
영 애　그러구 보니 난 생각이 나。그저께 새벽이였지! 변소에 나가노라고 토굴 밖을 나서는 그때였어! 별안간 쌍발기 소리가 들리지 않어! 난 꼭 폭격을 할려는 줄만 알았지!
창 수　낮게 떠 돌던 그놈 비행기 말이지?
영 애　그럼 그놈 비행기지! 결국 폭탄은 안떨구고 몇바퀴 우리 마을을 돌더니 어데론지 날아가 버리드란 말야!
영 덕　그 그럼 그 사람이 락 락하산을 타고 나린…?
창 수　너 얘기 못들었니? 미국놈들은 락하산으로 간첩을 떨군다는 걸! 만일 그 놈이 간첩놈이라면 이런 중요한 걸…。
영 애　무서운 일이야! 얘! 이제 철이랑 내려 온 담에 의논하는게 좋을꺼야!
　　(오른 편에서 소년들의 말 소리가 들려온다。그쪽을 바라보며)
　　마침잘 됐다。저기 애들이온다。
　　(이윽고 나무를 하다 만 차림으로 철이 혜순 오른편으로 등장)
철 이　뭐ㅅ들 그러구 있니? 빨리 빨리 날라야지 이러단 제2반 한테 지구 말껄!
혜 순　이번까지만 나르면 우리 반이 맡은 인민 군대로 나간 용이네 집 나무 운반은 완수야!
철 이　(아이들을 돌아 보며)
　　왜? 무슨 일 있었니?
창 수　영덕이가 그린 이 그림 때문에 얘기를 하던 참이야?
철 이　그림?
　　(그림을 받아 든다)
　　아! 이건 우리 마을이구나
창 수　글쎄 그러기 말이지?
철 이　영덕아! 누가 이런 그림을 그려 달라던?
영 덕　거 왜 어제 평양서 왔다구 하던 그 아저씨 있잖니? 안경 낀…。
철 이　그래 그 아저씨가 이걸?
영 덕　응!
철 이　이런걸 꼭 그려 달라던?
영 덕　한눈에 알 수 있는 마을을 그려 달랬어。

창 수 철이야! 난 암만 해도 이상하다구 생각해!

영 덕 (불쾌한 듯이)
이상한 것두 많기두 하다!

창 수 이걸 수상하게도 생각지도 않는 너는 맹꽁이야!

영 덕 (성이 나서)
뭐스? 내…내가 왜 맹꽁이야?

창 수 맹꽁이도 큰 맹꽁이지!

철 이 (잠시 생각하고 나서)
그만 둬!… 설마 그 아저씨가 간첩이야 아니겠지!

일 동 !?

창 수 (뜻 밖이란 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철이 너두 맹꽁이야!

영 덕 함부로 맹꽁이 맹꽁이 하지 말어! 기분 사납게, 무슨 증거루 자꾸 까박이가! 간첩놈이라면 그렇게 빼 젓하게 나다닐까?

혜 순 난두 오늘 아침에 그 아저씨가 공장 문 앞에서 어떤 낯선 로동자 아저씨하구 얘기 하고 있는 것까지 봤는데 뭐!

영 덕 자! 이래 뵈두 내가 맹꽁이야?

창 수 맹꽁이 아니구! 생각도 없는 미련한 맹꽁이지!

영 덕 (어리 둥절해서 어물어물한다)

창 수 흉칙스런 간첩놈이라면 다 뻐젓해서 다닌다는 말 못들었어? 심지어 놈들은 인민 군대로, 장사군으로 변장하고 나타난다는 거야!

혜 순 그렇지만 그 아저씨가 간첩놈일라구?

창 수 제—기! 모두 저의들처럼 생각하니 야단이야! 그럼 "나는 간첩입니다。" 하구 이마빼기에 써 붙이고 다닐까?

철 이 (남몰래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창수야! 네 그 원쑤놈들에 대한 경각심은 참 좋아! 누구나 다 그래야지! 그렇지만 증거두 없이 그것만 가지구 간첩놈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지!

영 덕 그 그렇구 말구! 만일 내무서에 알리웠다가 간첩이 아니문 창수 너 어떠카니?

창 수 난 또 한 가지 알구 있어! 그럼 왜 이른 아침에 이 언덕에 올라와 빙빙 돌아다니는 거야?

영 덕 아침 산보를 나온지 알어?

창 수 이 맹꽁이야! 내 말을 다 듣고 말해라!

철 이 그래 언제 어디서 봤니?

창 수 오늘 아침이야! 나무단을 져 나르려구 올라 왔다가 이 아래 범바위 밑에서 봤거든!

철 이 쉬!
떠들지 말어 누가 올라 오는가 부다!

영 애 (왼 편을 살핀다。)
아 수ㅊ 굽는 할아버지야!

철 이 자! 이건 내게다 맡겨 두고 어서 위에 긁어 모은 석가래 잎이나 꾸리자! 빨리!

창 수 난 암만 해두 이상해서 못견디겠어!

영 덕 철이야 이거 어떠칼까?

철 이 (잠간 생각하고)
이리 줘! 그건 내가 맡아 둘께

일 동 (가마 옆에서 새끼들을 들고 오른 편으로 퇴장)

철 이 창수야!
좀 더 세밀한 증거를 얻는 일이야! 난 벌써…。
(귓속말로 속삭인다。창수 그러냐구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니까 감시를 해서…알았지? 자 그럼 우리도 올라 가자。
(철이 창수 퇴장 하려 할 때 수ㅊ 굽는 할아버지가 장작을 지게에다 지고 등장)

할아버지 아! 저게들 있군 그래! 얘! 철이야!
(창수 퇴장)

할아버지 가만!
(철이의 도움을 받아 지게를 내려 놓고)
그런데 좀 전에 거 웬 사람이 너흴 찾던데 만나 봤냐?

철 이 안경 낀 사람 말이죠?

할아버지 그래! 다들 아는 사람이냐?

철 이 어저께부텀 알게 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그래?

철 이 왜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글쎄 좀 수상해 뵈서 말이다。내가 장작을 가지려 범바위 곁으로 지나갈 때 웬 낯선 사람과 마주 쳤지! 나두 놀라쓰지만 그 사람은 더욱 그려했지 그리구는 나를 보드니만 태연스레 너흴 묻드구나。

철 이 ?!

할아버지 보니 이 거리 사람은 아닌 모양 같은데…。

철 이 평양에서 왔다나요?

할아버지 평양에서?… 아무리 평양 손님이기로니 이런 산 속에 드나들 일이라군 없을 텐데…하여튼 조심들 해라! 그렇지 않아두 요새 간첩놈들이 많이 기여 든다든데…。
(초막 토방에 앉으며 담배쌈지를 꺼낼 때 떼구르르 조그만 쥬부라 코ㄴ덴사가 떨어진다)

철 이 할아버지! 뭐이 떨어졌어요。
(콘덴사를 주어 들며 놀랜다)
할아버지 이걸어디서 얻었어요?

할아버지 범 바위 풀 섶에 그런게 딩굴고 있길래 우리 옥동이 작난감으로 줄려고 넣은게다 대관절 그건 뭘 하는게냐?

철 이 무전기… 아니 라디오 같은데 쓰는 거예요。울 형님이 군대나 가시기 전에 이딴걸 많이 가지구 라디오랑 고치는걸 본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 그래? 그런게 왜 범바위 부근에 떨어 졌을까?

철 이 이상한 걸요?

할아버지 (담배를 피우다 말고)
그런걸 떨어쳤을 사람이라구야 이자 그 사람 밖에 더 있겠니?

철 이 할아버지 그 사람은 어디루 갔어요?

할아버지 글쎄 어디루 가는진 자세힌 몰라두 아마 이리루 너휠 찾으려 올 테지。

철 이 할아버지 그 사람이 이제 여게 올라 오면 이런걸 얻었다는 얘긴 하지 마세요 네?

할아버지 왜?

철 이 글세요 꼭 약속을 지켜 주셔야 해요。

할아버지 그 놈이 혹시?…아닌게 아니라 어젯밤에 이 골짜기서 신호탄이 오르는 걸 본 사람들이 있다는데…그러구 보니…。

철 이 쉬! 떠들지 마세요。
그리구 할아버지 만일 그 사람이 올라 오거든 다른 얘기랑 하면서 붙잡아 두세요。꼭 이에요。

할아버지 글쎄 올라 오면 그렇게 하지。

철 이 꼭 올라 올꺼에요。 그리구 영덕이를 찾으면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영덕이를 불러 주세요。

할아버지 오냐 그렇게 하자!
(이 때 왼편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 온다)

철 이 아 그 놈이다。할아버지 꼭 그

렇게 해 주세요。

할아버지 오냐 그런 일쯤이야 못하겠냐?

(철이 황급히 오른 편으로 퇴장하는 척 하고 수츠가마 옆에 숨는다)

— 사이 —

할아버지 (지게에서 장작을 내려 놓고 초막으로 들어 간다)

(왼편으로 간첩이 땀을 벌벌 흘리며 등장 사방을 두리번두리번 살핀다)

간 첩 필경 여게들 있을 텐데… 그 그림만 내 손에 쥐면 헤헤…。

(할아버지 도끼를 들고 나오다 간첩과 시선이 마주 친다)

간 첩 헤헤… 또 만났구려!

할아버지 신통히두 또 만났쉐다。그래 아직두 아이들을 못찾았소?

간 첩 네!다람쥐 모양 잘두 돌아가니까 원 어디 만날수가 있어야죠。

할아버지 그 애들두 여간 바쁜 몸들이 아니라우! 애국 지성들이 여간 해야지。

(이 때 철이 얼핏 사라진다)

간 첩 저 로인장 그 애들을 못 보셨는지요?

할아버지 봤지요。

간 첩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 그런데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그 애들이 하는 일은 모두 저희들 끼리 경쟁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후에 만나서 할얘기면 찾지 않는게 좋아서 하는 말이웨다。대관절 무슨 일인데요?

간 첩 그 애들하구 만날 약속을 했길래 말입니다。

할아버지 글쎄 대달라면 대 드릴 수도 있죠만。

간 첩 헤헤…… 로인장두 공연한 경계를 하시는군! 내가 간첩이나 아닌가 해서 그러는게죠?

할아버지 예? 헤헤… 그 그럴 리야 없겠지요 보아하니 당신은 기관에 다니시는 어른인 것만은 틀림 없고, 가만 기다리슈。내 불러 드리리다。

(일어서 오른 편을 향하여) 얘 영덕아 영덕이 게 있느냐! 평양서 오신 안경낀 손님이 너흴 찾아 왔다。

(간첩 할아버지의 큰 소리에 당황하여 말을 막으려다 말고 흘끔 주위를 살핀다)

소리 네! 이제 곧 가요。

— 사 이 —

(이 때 곽쟁이를 든 철이, 나무를 해진 혜순, 영애 등장。혜순, 영애 그냥 왼 편으로 퇴장)

철 이 아! 아저씨 오셨어요?

간 첩 수고들 한다!

철 이 아저씨 무슨 일예요?

간 첩 별루 큰 일은 없다。오늘 볼 일도 다 보고 해서 너희들을 만나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그런데 영덕 동무는?

철 이 지금 막 나무단을 묶는 참이에요 이제 곧 내려 옵니다。

간 첩 참 너희들은 용하다。이자 이 할아버지께서두 얘기를 들었지만 참 용해!

철 이 뭘요! 이거 다 우리들이 할 일인데요 뭐!

(하며 주머니에서 콘센사를 끄내여 만지작 거린다)

간첩 !? (철이의 콘덴사를 발견하고 몰래 자기 주머니를 뒤진다)

간 첩 네 손에 있는 그건 뭐냐?

철 이 이거 말이에요? 아까 저 범바위 곁에서 얻은 건데 뭣에 쓰는 건진 모르겠어요?

간 첩 어디?

(손에 받아 들고 놀랜 얼굴。곧 태연스럽게)

거 참 마침 잘 됐군! 얘! 이걸 나를 다우!

철 이 전 뭣하는 건데요?

간 첩 오트바이나, 자동차 같은데 쓰는게지…。(돈을 끄내 주며)

철 이 원 아저씨두! 어서 넣어 두세요。우리 소년단원들은 그런 돈은 받질않습니다…。저 아저씨! 기다리세요。내 영덕이랑 곧 데려 올께요。(뛰여 퇴장)

할아버지 (그제야 철이의 행동을 리해한 듯 고개를 끄덕인다)

간 첩 로인장은 뭘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시오?

(의혹에 찬 눈초리로)

할아버지 당신도 보셨지요? 참 똑똑한 애들이죠。아 그전 애들 같으면 말누깔이라도 사 먹었을 터인데…。

간 첩 (그제야 저으기 안심되는 듯) 그러기 〃아동단원〃이지요。

할아버지 허허… 〃아동단원〃이라니요? 소년단원이겠지요。

간 첩 그 그렇지! 소년단원 헤헤…。

(이 때에 지게에 나무단을 해진 철이, 창수, 영덕 등장。철이 영덕에게 눈짓한다)

영 덕 아! 아저씨! 기다렸어요 가만 계세요 (지계를 내려놓고 그림을 꺼내며) 자! 아저씨가 그려 달라던 그림이에요。

간 첩 수고했소! 호! 참 잘 그렸는걸홈!

(재빨리 마을과 그림을 대조해 본다)

철 이 자! 어때요? 잘 그렸죠? 영덕이는 우려 분단에서두 이름 난 어린 화간 걸요。

간 첩 참 잘그렸소。아주대단한 솜씨걸

창 수 아저씨!한가지 부탁이 있어요。그건 지금 평양 소년단원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철 이 아저씨는 평양에 계시니까 잘 아실께 아니에요?

간 첩 거야 쉬운 일이지…만…어때 저녁때 내가 든 려관으로 오너라 실전 들려 주지!

웰 이 지금 좀 얘기 해 주세요。일은 다 보셨다구 하지 않았어요?

간 첩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 나서! 그럼 이따 또 만나자! (황황히 퇴장하려 한다)

(세 소년 간첩을 붙잡고 얘기 해 달라고 성화를 한다)

간 첩 놔라。이따 얘기 해 준다는 데두 저녁녘에 오너라! (한동안 간첩과 소년들 엉키여 돌아 간다)

(영애 급히 왼 편으로 등장)

영 애 아저씨들! 빨리, 빨리!

(이옥고 혜순이를 앞장으로 내무서원。무장 자위 대원 급히 등장。내무서원 권총을 빼드는 간첩의 손목을 꽉 움켜 잡으며 권총을 간첩 등에다 콱 박는다)

서 원 손 들엇!

(자위 대원 간첩의 권총을 빼았는다)

간 첩 앗!

웰 이 아저씨! 이 놈은 우리 마을을 탐지하려고 기여든 간첩놈이에요。이 놈은 우리들을 얼려서 마을 략도를 그리게 했고 또 무전기 부속품까지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서 원 (재빨리 간첩의 몸둥이를 검사한다。 콘덴사, 그림, 그리고 세균병을 넣은 병 등을 낸다。이놈아! 네놈과 같이 락하산으로나린 오준칠이는 방금 범바위 비밀 소굴에서 체포되였다!

간 첩 엣?

서 원 동무들은 참말 훌륭한 공훈을 세웠습니다。이 놈들은 바로 사흘 전 락하산으로 나린 미국 간첩놈들입니다。 본서에서는 그 날로 즉시 수색을 개시하여 한 놈은 체포하고 또 한 놈인 이자는 동무들이 체포하였습니다。만일 이 놈들을 놓쳤드라면 우리 공장과 도로, 교량, 창고들이 놈들의 폭격을 받았을 겁니다。동무들은 훌륭히 우리 마을을 원쑤놈들로부터 지켰습니다。

할아버지 (도끼를 쳐들며)

이 까 죽일 놈 같으니라구…

창 수 이 놈아! 맛이 어때? 네놈은 우릴 속일려다 도리여 우리께 속아 넘어간 큰 맹꽁이놈이다!

일 동 하하…。

할아버지 이 놈을 붙잡았기 다행이지 놓쳤드라면 정말 큰 일을 치를번 했구나!

서 원 그러기 언제나 우리는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는 리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간교한 미국 원쑤놈들은 갖은 술책과 책동으로 우리의 후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경각성을 높여 놈들의 책동을 막는 일이 후방을 지키는 우리들의 중요한 일입니다。동무들 수고했습니다。

이 사실은 곧 상부에 보고될 것입니다。

(간첩을 떠밀며)

걸어라!

(퇴장)

창 수 자! 영덕아! 누가 맹꽁이야。

영 덕 (고개를 떨어치며) 내가 맹꽁이 였어!

일 동 하하…호호…

—이때에 고요히 막—

(1953, 2, 10)

소 년 단 력 세

3 월 1일

3·1 운동 33주년 기념일 1919년)

3 월 5일

지개혁 법령 발표 7주년 기념일(1946)

3 월 8일

국제 부녀절 43주년 기념일 (1910년)

일

생 서거 70주년 (1883년)

3월 21일—28일

세계 청년 주간 (1943년부터)

현 장 문 제

기러기가 모두 몇마리일까요?

기러기 떼가 나라 가고 있습니다。한 마리는 앞 섰고 두 마리는 뒤 섰고 한 마리는 뒤 섰고 두 마리는 앞 섰고 한 마리는 두 마리 가운데 있고 한 렬에는 세 마리 있습니다。

기러기가 모두 몇마리일까요?

『소 년 단』 제2호

차 례

조선영화 1952년도 제작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

씨나리오……… 윤두헌
연 출……… 윤룡구

불잡고 해
한다)
준다는 데두

1952년도에 국립 영화 촬영소에서 제작한 예술 영화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은 싸우는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 모습을 그려낸 예술 영화로서 인민들속에 조국애와 적개심,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주는 훌륭한 영화입니다.

〃포수 부부〃라고 이름난 마을 세포 위원장 리운일과 리 녀맹위원장 김순덕 부부가 밭일을 끝내고 행복한 집으로 도라 가는 장면。

1950년 겨울 우리 인민 군대의 전략상 일시적 후퇴 시기에 마을에 기여 든 미국 강도 놈들은 눈 뜨고는 보지 못할 갖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사진은—미군 사령관놈이 애국 인민들을 총살장에 끌어 내다 짐승 같은 만행을 하고 있는 장면.

1953년 2월 1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발간
1953년 2월 27일 발행
『소년단』 제5권 2호

발행소 민주청년사 책임주필 리 두 진 인쇄소 민주청년출판인쇄소
7—01262 값45원 총배포처 체신성 출판물 관리처